



전복적 반사경으로서의 메갈리안 논쟁

남성 혐오는 가능한가

Megalian Controversy as a Revolutionary Mirror : Is It Possible Man-hating?

저자
(Authors) 윤지영
Yun Ji Yeong

출처
(Source) [한국여성철학 24](#), 2015.11, 5-79(75 pages)
[Korean Feminist Philosophy 24](#), 2015.11, 5-79(7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여성철학회](#)
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Philosopher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3282>

APA Style 윤지영 (2015). 전복적 반사경으로서의 메갈리안 논쟁. 한국여성철학, 24, 5-79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전복적 반사경으로서의 메갈리안 논쟁 : 남성 혐오는 가능한가

윤지영 (한양대학교)

【요약문】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은 우리의 안온한 일상의 매듭들을 풀어헤쳐 아버지의 법질서의 비전체성과 비토대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즉 메갈리안을 여자 일베나 일베의 복사판으로 축소하기에는 이 반사경이 옹기시키는 현실의 임계점들은 현실을 재구성하고 해체하길 촉구한다. 나아가 메갈리안들은 혐오의 언어가 가진 각화된 언어 대신 점도-유연성의 언어라는 농밀도의 언어를 풀어내며 여성 혐오 논리의 빈곤성을 되받아친다. 혐오의 언어가 명확한 분할의 언어로서 기존 질서를 강화, 유지, 보존하기 위한 봉합의 논리라면 점도-유연성의 언어는 분노라는 정치적 파토스를 통해 아버지의 법질서에 파국을 도입하는 탈봉합의 언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혐오는 없다. 단지 남근질서에 대한 분노(indignation),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만이 있을 뿐이다. 혐오는 이름과 자리의 질서를 재생산해내는 것으로 하위 계급자들을 향한 신화적 폭력·법 보존적 폭력의 양식이라면 분노는 상위 계급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뒤흔들어놓는 신적 폭력성·혁명적, 법 파괴적 폭력의 양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혐오 논리의 질서판을 탈구시키는 메갈리안의 행위화는 분노라는 급진적 정치화의 힘인 것이다.

주제어 : 김치녀, 메갈리안, 살갓의 언어, 전복적 반사경, 점도-유연성의 언어

1. 들어가는 말

거울이라는 반사경 앞, 응시의 지속과 강도를 높여나가다 보면 순간 얼굴 형상이 일그러지고 부패한 채, 눈 위로 튀어 오른 경험을 한 적 있는가. 이처럼 거울이라는 표면은 유사성과 닮음의 역량 대신, 돌발적 틈의 난입으로서의 낯센과 경이라는 장막을 우리에게 펼쳐내기도 한다. 왜냐하면 거울(miroir)의 어원학적 층위는 mirare(미라레)라는 라틴어에서 기인하며 이는 ‘신기하게 생각하다’, ‘놀랍게 바라보다’라는 mirari(미라리)라는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¹⁾ 즉 거울은 경이로움과 신기함이라는 호기심과 놀라움의 촉매제로서 시선에만 머물지 않는 운동성으로, 거울의 또 다른 “라틴어인 speculum(스페쿨럼)의 ‘사변’과 ‘사려 깊게 바라봄과 심사숙고’”²⁾라는 사유의 심층화 작업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한다. 이때의 사유는 거울 이미지가 촉발하는 이질적 감각들의 해일들에 그 사유의 수맥이 파리를 틀고 있는 것으로, 이미 상징계와의 친연성을 끊어낸 실재(le Réel)³⁾—상징계라는 아버지의 법질서의 파기지점—의 박동이랄 수 있다. 다시 말해, 거울은 실재성(reality)과 이미지 간의 일치를 담

1) 거울의 어원학적 유래에 대한 논의는 윤성준의 『거울유희로 본 타이포그래피의 유희적 표현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였다. “거울의 영어 Mirror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 ‘보다’라는 뜻의 라틴어 ‘Mirare’에서 유래되었으며 ‘신기하게 생각하다’, ‘놀랍게 바라보다’란 의미의 라틴어 ‘Mirari’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윤성준(2006), 「거울 유희로 본 타이포그래피의 유희적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 디자인과 석사 논문, 22쪽.

2) 거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speculation이라는 추상적 사유행위로서의 사변과 이어지는가를 드러내기 위해 다음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거울의 라틴어 말을 찾아보면 ‘Speculum’으로 이 단어는 성서에 등장한다. ‘사변’, ‘사려 깊게 바라보다’, ‘심사숙고 하다’란 뜻의 영어단어 ‘speculation’의 어원이 바로 이 ‘Speculum’이다.” 윤성준(2006), 「거울유희로 본 타이포그래피의 유희적 표현에 대한 연구」, 22쪽.

3) 라캉적 용어에서 실재는 상징계라는 아버지의 법질서에 의해 언어화되거나 개념화되어 포섭, 종속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실재는 상징계의 불가능성이자 그 한계점인 것이다.

아내는 순응적 대칭소나 재인(再認)의 구도가 아니라, 비추어진 것과 비추는 것 간의 반사각들을 통해 다각적이며 이질적인 사유 회로가 뻗어나가도록 하는 변형과 창조의 세공소는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전복적 반사경으로서의 메갈리안들은 단순히 여성혐오현상을 투명히 담아내는 반영물이 아니라, 현실 좌표축을 일그러뜨리도록 하는 감각들의 소용돌이로서의 실재의 사건일 수 있지 않은가. 바로 이러한 물음들의 공명 속에서, 전복적 반사경으로서의 메갈리안들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윤리적 주체화 양태를 직조할 수 있는가가 이 논문의 사유 반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울 구조를 동일성의 반영 관계로 단순 축소하기엔, 투영망으로서의 거울은 갈라진 틈으로서의 외상적 과잉⁴⁾의 출몰 지점일 수 있음을 메갈리안 논쟁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메갈리안은 누구인가. 메갈리안(megalian)은 『이갈리아의 딸들』⁵⁾이라는 소설명과 메르스 갤러리 사용자의 합성어로서 만연해

4) 이러한 틈과 균열로서의 트라우마적 지점이 실재이기도 하다.

5) 『이갈리아의 딸들』은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1975년 작 소설로서 가부장제의 사회에서의 여성 중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남성의 몸과 사유를 미시적 차원은 물론 거시적 차원에서 예속화하는가를 날카로이 드러낸다. 기존 가부장 사회에 대한 역전 현상으로서의 이갈리아에 대한 묘사 전략은 가부장제가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는 차별의 공리들과 상식들이 얼마나 편향적인 것인가에 대한 반사경으로서 작동한다. 이갈리아에서 남성의 열등성은 신체에 대한 지속적 각인을 통해 드러나며 이것은 폐호라는 음경 가리개의 부착을 통해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미의 가치를 구현하는 남성의 특정 신체화 방식에서 큰 키와 근육질 몸, 힘등은 열등-가치화되고 뚱뚱한 몸과 작은 페니스, 작은 키는 욕망의 지점이 된다. 또한 여성 클리토리스 중심으로 개편된 성적 실천에서 남성의 쾌락은 철저히 배제되며, 피임과 양육의 책임은 남성만의 본성과 기능으로 자연화 되고 본질화 된다. 나아가 남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소외는 참다운 남성성의 본질을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저항 담론들은 철저히 억압되며, 오히려 모든 기득권을 누리는 여성들이 드센 남성들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비애를 겪는다고 너스레 떠는 모습이 이 소설에서는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즉 이 소설은 가부장제 사회가 주지하고 있는 차별 기제가 얼마나 우스꽝스럽도록 비정합적이고 비논리적인

있던 여성 혐오의 프레임을 뒤집어 패러디하며 문제적 주체화 양태들로 부상하였다.⁶⁾ 우선 필자는 메르스 갤러리에서 일어난 도발적 주체화 양태가 기인하는 지점부터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메르스 갤러리 사용자들은 메르스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한 위기⁷⁾의 담론이 여전히 젠더 편향적이라는 기존 의미질서를 공고화하는 방식으로 가동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폭발시키며 등장한다. 여기서 위기(krisis)라는 파국적 계기는 그리스어 κρίνειν(크리네인)에서 어원학적으로 기인하며, 이는 ‘어떤 것을 ‘분리’해서, 그 ‘차이’를 드러내어 알고, ‘판단’하며, 실천적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성과 관계”⁸⁾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리, 차이화, 판단, 결정이라는 위기의 작동 구조 안에 메르스를 둘러싼 젠더 편향적 담론이 구성되는 방식을 낱낱이 해부해 보고자 한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10번째 감염 남성이 보균 의심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장을 강행했고 결국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⁹⁾

가를 이러한 전복적 반사경을 통해 통렬히 풍자하고 이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

- 6) 처음에는 메갈리아의 딸들로 시작했으나 여성 혐오에 대한 저항이 생물학적 여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메갈리안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 7) 2015년 5월 말부터 6월, 7월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중동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로 감염 공포와 더불어 정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위기(危機)의 국면에 처한 바 있다.
- 8) 위기라는 단어의 어원학적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차용하였다. 김정숙(2012), 「이윽クの 연극 위기의 미학과 담론성」, 『한국 연극학』 제48호, 한국 연극학회, 227쪽.
- 9) 최희진 기자·베이징 오관철 특과원(2015), “메르스 의심 환자 중국 출장… 국가 방역망 뚫렸다.” 경향신문 2015년 5월 29일자 기사. “최초 환자와 병실에서 밀접 접촉한 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증상을 보인 40대 남성이 지난 26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 남성이 출국한 뒤에야 메르스 의심 환자인 것을 알고 소재 파악에 나서 방역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 환자로 확진될 경우 이 남성의 직장 동료나 중국행 비행기 탑승객 등에게 메르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메르스 환자(76)의 아들(44)이 지난 26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27일 확인하고 국제보건규칙 규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와

와 홍콩에 체류한 한국 여성 2명이 메르스 보균 의심자로 격리 조치당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격리 거부와 격리 조치 수용¹⁰⁾ 후 바이러스 음성 판정으로 이어졌을 때, 이 두 사건은 일상성에서 ‘분리’되는 사태-한국이라는 국경을 넘어 중국 일대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 사례로 진단되었다. 첫 번째 사태가 양성 판정이고 두 번째 사태는 음성 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염의 확진 여부와는 상관없이 두 사태는 젠더(gender)에 따라 대비된 반응의 ‘차이’를 야기한다. 메르스 감염자가 남성이라는 사회적 젠더성을 지녔을 때엔 중국 출장 강행은 생계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의 의무를 다한 책임감의 발로이자 조직 사회의 희생자로 여겨짐으로써 그에 대한 온정주의적 이해가 주된 ‘판단’ 양태였다면, 이에 반해 홍콩에 체류한 두 여성은 지각없고 이기적인 무개념녀, 쇼핑이라는 허영적 과소비를 일삼는 김치녀, 원정녀로 낙인찍혀 온갖 욕설과 폄하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이중적 ‘판단’의 도입은 위기의 담론이 여전히 기존의 남근적 의미망을 봉합하는 ‘결정’ 구조로 귀착하는 듯 보였으나, 메르스 갤러리의 사용자들 중 몇몇으로부터 이러한 위기 담론의 보수성에 대한 의미망 찢기라는 새로운 ‘결정’이 촉발된다.

다시 말해, 위기를 공포(horreur)로 치환할 때에는 그 공포를 중화하기 위한 혐오(haine)의 대상이 양산되지만, 위기를 전환점의 계기로 변환할 때엔 분노(indignation)에 의한 정치적 행위화가 가능하다고 필자는 본다.

중국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28일 밝혔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 남성을 광둥성의 한 병원에 격리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며 발열 외에 다른 증상은 없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다.”

- 10) 최현석 특파원(2015), “홍콩당국 “메르스 확진자와 비행기 동승 韓人 2명, 격리 거부중”, 연합뉴스 2015년 5월 30일 기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남성 K(44)씨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홍콩 보건당국이 격리 치료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인 2명이 격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윙만(高永文)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K씨가 지난 26일 탑승한 한국발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OZ723편에서 K씨 주변에 앉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이 검사나 격리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가 여성혐오의 담론을 통해 치안의 질서를 강화하는 남근적 의미의 결정 작용(crystallisation)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치적인 것(politique)의 도래로서 이러한 의미 결정체의 배열을 휘저어놓는 해체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를 공포로 해석하는 것은 위기에 의해 드러난 구멍들을 성급하게 기존 의미망에 포획하여 이를 메꾸려 할 때에 발생하게 된다고 필자는 분석한다. 공포는 불유쾌한 감정이자 무(無)라는 공백의 파국성—그 파국성은 대상이 없음에서 기인하며 설령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이미 상징계¹¹⁾에 위치해있지 않아 파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을 명확한 대상성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포는 대상이 없는 무를 대상이 있는 것으로 축소, 환원하고자 하는데, 여전히 공포의 대상은 위압적인 국면을 내포하기에 이러한 압도적 위상이 꺾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포의 대상이 가진 위협성을 중화하고자 공포는 증오/혐오의 대상으로 그 수위가 격화된 것을 자신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게 한다고 필자는 분석한다. 왜냐하면 증오/혐오의 대상은 위압적 국면 대신 가치 절하의 대상으로서 통제와 검열을 위한 범주화라는 인식의 논리, 즉 이해의 국면에 의해 포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증오/혐오의 대상은 모든 부조리와 불안정의 원인으로 규정 가능한 것이며 이를 적출해 냄으로써 유쾌함과 안정성, 항상성의 보존 논리가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혐오 대상의 규정성을 통해 현실을 교착(膠着)¹²⁾상태로 되돌려놓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변환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거대한 구멍 앞 심연이 공명해내는 무(le Néant)와 물(la Chose)의 교차와 일렁임을 감각할 때에야 비

11) 상징계(Le Symbolique)는 아버지의 법질서로서 문화, 언어체계, 규범, 도덕 등을 의미한다.

12) 교착이란 어떤 상태가 굳어 조금도 변동이나 진전이 없이 머무를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무와 물의 혼용성은 라깡이 언급하는 실재¹³⁾의 만질 수 없는 질감이자 촉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근적 의미 결정구조로부터 오롯이 거두어진 실재의 촉감과 질감은 어떻게 감각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의미 결정체라는 경화된 배열 구조를 뒤틀리게 하는 데에서 비롯되며 바로 분노라는 파토스의 역학성에 의해 사유 파동과 존재 요동을 촉발하는 실재의 공백이 열릴 때 감각된다. 왜냐하면 분노¹⁴⁾라는 파토스는 부조리한 현실의 교직(交織)¹⁵⁾을 들여다보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현실의 교직이 공백 위에 세워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자 이 교직의 윤채(潤彩)¹⁶⁾-대타자의 가정된 지식과 비대칭적 관계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노의 힘이다. 다시 말해, 메갈리안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알아들을 수 있는 정제된 언어, 경계 구획면이 매끈한 고체의 언어가 아니라 분노의 마그마(magma)가 끈적끈적하게 들러붙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는 점도-유연성의 언어¹⁷⁾라고 필자는 분석한다.

-
- 13) 라깡에게 실재는 개념화의 불가능성이자 상징계에 의해 포섭되거나 포획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앞에서 상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언어적 포착성을 넘어서버린 것으로서의 실재는 개념적으로는 만져지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la Chose)은 주이상스(jouissance)라는 향유로서 쾌락원칙을 넘어서버린 죽음충동과 무의미, 비의미, 성 등과 같은 것이다. 즉 실재는 구멍/공백이자 잉여/과잉으로서 무와 물이 뒤엉켜버린 역설적, 모순적 장이라 할 수 있다.
 - 14) 「증오의 프리즘으로서의 일간 베스트 현상읽기-파토스의 정치학과 윤리학은 가능한가.」라는 논문에서 증오/혐오와 분노의 파토스가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가 논증된다. 증오/혐오가 하부 계급자들에게로 향하는 것이라면, 분노는 상부 계급자들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자가 자신이 겪은 부조리한 현실 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부 계급자들에게로 그 적대심을 투영해냄으로써 이러한 부조리성을 더욱 강화하는 보수적 파토스라면, 후자는 부조리가 양산되는 메커니즘 자체를 비판하며 이것에 대한 저항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행위화의 동력으로서의 파토스인 것이다.
 - 15) 교직이란 두 가지 이상의 실을 섞어서 짜는 일, 또는 그런 직물을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 16) 윤채란 윤이 나는 빛깔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 17) 점도-유연성이라는 개념은 윤지선의 2015년 해석학회 8월 발표문에서 처음으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메갈리안들이 들어선 국면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의 사자 단계임을 논증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여성 혐오를 양산하는 언어와 메갈리안들의 언어의 차이를 밝혀낸 후, 점도-유연성의 언어가 과연 어떠한 전복적 미러링(mirroring) 효과를 구사하는가를 촘촘히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논증의 과정에서, 전복적 반사경로서의 메갈리안이 라캉의 『세미나 10』에서의 벌어진 틈으로서의 거울, 즉 실재적 사건일 수 있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나아가 페니스와 팔루스의 밀접한 연계성을 라캉의 『세미나 23』을 통해 논증함으로써 메갈리안의 손모양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고 나아가 남근 논리가 경화의 불변성이 아닌, atopos (아토포스)적 물렁거림과 유동성의 몸임을 드러낼 것이다. 여성혐오의 신화들—메두사의 머리와 바기나 덴타타(이빨달린 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여성 혐오의 작동원리를 파악하고 나아가 남성 혐오의 불가능성을 치열히 논증해 낼 것이다. 이러한 전복적 반사경이 니체적 사자에서 어린아이 단계로 도약 가능한가를 분석하는 가운데, 과연 메갈리안들이 새로운 윤리적, 정치적 주체화의 양태가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할 것이다.

개진되었다. “점도-유연성(visco-plasticité)은 구성성분들 간의 결합을 도와주는 끈적끈적한 점성의 응집력뿐만 아니라 형태나 비율이 유동적으로 변환 가능한 유연성 또한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성의 응집력으로서의 cohésion은 요소들을 함께 결집시키고 엮어내는 연대성이긴 하지만 이들 사이를 관통하는 일관된 통일성의 논리는 부재함에 주목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유연하게 재조합되고 풀어헤쳐질 수 있도록 험겁게 엮여있기에 이것들을 정합적 규칙에 의해 분절시키고 하나의 전체(tout)로 종합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지선(2015),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 용어 분석론 : 지질학적 공간의 탐사작업으로서의 철학」, 2015년 8월 해석학회 발표문, 9쪽.

2. 혐오의 언어와 메갈리안의 언어의 차이

메갈리안의 언어는 왜 우리에게 있어 문제적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온 몸을 진동시키는 포효로서 ‘아니오.’라는 저항의 외마디로 들끓는 것이기 때문이다. 날이 선 기민성의 가시와 축수로 몇 천 년의 무게의 휘장을 두른 전통과 관습, 상식이라는 의미화 체계의 베일을 찢어 내어버림으로써 통각의 경험을 우리에게 안기고 만다. 경화된 고막을 비수처럼 찢러 우리가 봉합해버리고자 한 구멍과 심연을 솟구치게 하여 소음들로 치부되어 왔던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을 왈각 쏟아내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메갈리안들은 뱉어내고 쏟아내며 분출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인가.

1) 니체적 사자 단계로서의 메갈리안들

메갈리안들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가 제시하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 단계 중, 이제껏 가장 무거운 것—기존 가치에서 고양된 덕목들과 태도들—를 짊어지고서 그 무게에 으스러지는 고통을 삼키던 낙타의 단계에서 이미 벗어났다. 여기서 낙타라는 국면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초월적 심급에 대한 “체념과 경외”¹⁸⁾라는 파토스(pathos)-감정과 정념에 대한 체화는 물론 굵은 등과 굵은 무릎, 숙인 고개라는 신체적 에토스(ethos)-습속을 통해 굴종의 역사를 새겨나가는 단계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기존의 가치 체계들이 제시하는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강령들, 그 정언명법들이 실어 나르는 신성한 덕목들에 의해 질식당하고 매몰당하는 차원으로서의 노예적 상태를 일컫는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들 속에 자신의 육체를 각인하고 축소해 가는 것이 성실성과 온화함의 덕목을 둘러쓰는 방식이며 바로 이러한 낙타 단계가

18) F. Nietzsche(1996),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순옥 옮김, 홍신문화사, 36쪽.

여성이라는 젠더¹⁹⁾의 특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²⁰⁾ 이 사회에서 여성이 된다는 것은 마치 낙타가 중력이라는 자연 법칙과 의무강령이라는 사회, 문화적 법칙들에 예속되는 것처럼, 생리와 임신, 출산이라는 자연적 법칙들에 종속되는 것이자 처녀성과 모성이라는 사회, 문화적 법칙들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여성의 낙타성은 여성의 본질처럼 여겨져 온 것이며 이러한 낙타다움으로서의 순응과 감내, 두려움은 여성의 덕목으로 고양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메갈리안들은 중력과 도덕, 상식의 무거움에 짓눌린 낙타 단계에서 벗어나 사자의 단계 속으로 돌진해나가고 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언어는 더 이상 외부에 대한 경외와 체념,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내부성에 대한 자기 검열과 자기 힐난이라는 이중구조가 부과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분노의 힘을 분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갈리안의 언어가 정제되어있지 않고 정화되지 않으며 그저 배설하고 폭발한다는 비난은 무엇을 간과하는 것인가. 이것은 메갈리안들의 변화 단계가 사자라는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자, 남성적 욕망의 배설소로 여태껏 전락했던 이들에겐 배설의 권리조차 승인되지 않아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설이란 무엇인가. 배설은 체내의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며, 필자는 이러한 배설이라는 dejection을 projection이라는 투사와

19) 필자는 여성과 남성을 젠더(gender)라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망을 통한 규범화된 행동 양태와 상징적 동일시의 영역으로 해석한다. 주디스 버틀러의 관점처럼 이미 생리학적, 해부학적 특징들 역시 사회적, 문화적 의미망에 걸릴 때에야 비로소 해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순수 실체로서의 자연(nature)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이란 오직 문화에 대한 대척점으로서, 즉 이분법적 의미화를 통해 인식 가능한 효과물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바이다.

20) 니체가 낙타 단계를 기독교 전통에 갇힌 유신론자로 본다면, 필자는 이러한 낙타의 단계를 이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젠더가 부과된 자로 해석해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갈리안은 전형적 여성이라는 젠더성의 의무들과 규율들을 거부하는 사자 단계에 있다고 본다.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투사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이나 불안 또는 실패 등의 이유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게 귀착시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는 것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남성적 말하기의 방식이자 남성적 본능에 대한 정당화 기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안에서 바깥으로 내던져지는 욕망의 방향성이 과연 여성이라는 젠더에게는 허용되어 왔던가. 여성적 젠더가 자연 법칙에 예속되는 방식으로서의 생리나 출산만이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배출 행위로서 승인되어왔다면 이를 제외한 배설과 투사는 이미 남성적 가치이자 본성, 특권으로 자연화되어 버린다.²¹⁾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은 남성적 배설의 공간이자 남성의 욕망을 담아내는 몸-그릇으로 외부적인 것이 내부에 담기는 injection이라는 주입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몸-그릇으로서의 여성은 배설과는 다른 방향성—바깥에서 안으로의—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introjection이라는 내사의 방식과 맞닿는다는 것에 필자는 주목하고자 한다. 내사란 외부의 대상을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여 자신의 일부로 동화시키는 것으로 외부적 현실에 의해 비롯된 분노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에 이 분노를 자신에 대한 힐난과 자책으로 전환하는 심리 구조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남편이 때리는 것이다.”라는 말하기 방식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몸-그릇으로서의 여성은 남성적 배설물—욕설이든 정액이든 폭력의 상흔이든—을 담아내며 오히려 이러한 자기 자신을 더러움의 대상으로 수치화하고 자책하는 방식을 통해 “여성은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강령을 주입받아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메갈리안들은 죄책감과 자기 힐난을 분노로 전환하고자

21) 자신의 성욕에 충실하고 욕설들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나아가 자신의 욕망들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것을 남성적인 것으로 여깁고 동시에 자신의 욕망과 성욕 배설에 서툰 남성을 초식남으로 명명, 분류하며 이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진단한다.

과감히 배설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고통과 쾌락, 슬픔과 기쁨, 욕망과 충동을 향해 온몸의 진동과 진통을 쏟아내고 뱉어내는 것이다. 드디어 배설이라는 안에서 바깥으로의 운동을 하기 시작한 메갈리안들에게 “여성마저 배설하면 안 된다.”라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이미 배설이 남성적 권력이 확인되고 재생산되는 특권적 지점임을 인정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공중 화장실에서의 여성의 배설 행위를 관음증적 시선으로 포획해내려는 대대적 규모의 몰래 카메라의 설치²²⁾는 배설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남성적 욕망의 배설 대상으로 다시금 축소시키고자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몰래 카메라의 대대적 생산과 유포와 공유, 소비 행위는 여성들에게 배설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는 것이자 배설의 순간에도 배설의 대상으로 소비될 수 있음을 각인하여 몸가짐을 조심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낙타로서의 행동강령과 지침을 부과하는 방식인 것이다.

메갈리안들은 “여성은 뭐뭐해야만 한다.”라는 절대적 행동 강령들과 덕목들의 실현방식들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직시하며 “나는 하고자 한다.”를 외치는 사자 단계이다. 충동과 갈등, 욕망과 분노마저 남성적인 가치라고 여기며 순종과 체념, 양보와 조화를 미덕으로 삼아야만 했던 낙타-여성은 이제 없다. 즉 메갈리안들은 갈등의 첨예한 긴장, 그것의 역학성을 통해 거대한 용으로 상징되는 진리와 덕목, 상식의 비늘들을 온몸

22) 김정환(2015), “나도 찍혔나? 몰카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뉴시스, 2015년 9월 8일 기사.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카메라가 고성능화, 소형화하면서 이를 생활 속 다양한 소품에 숨긴 몰카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볼펜, 안경, 모자, 담뱃갑, 라이터, 자동차 키, 휴대폰 보조 배터리, 탁상시계, 화재경보기 등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상하기 힘든 것들 속에도 몰카가 숨어든다. 그것도 풀HD급 초고화질, 소리 감지 기능, 적외선 촬영 기능 등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했다. 도촬 장소도 과거 러브호텔 룸이나 집에서 여성용 공중화장실, 지하철,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탈의실, 샤워장까지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웹하드 사이트나 성인사이트 등에서 유료로 다운로드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에서 떼어내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황금비늘로 뒤덮인 용²³⁾은 진리의 이름이자 선과 아름다움의 가치들이 응집된 기존 의미 질서의 결정체에 해당되며 이러한 거대한 질서와 맞서지 않고서는, 나아가 용의 비늘이라는 경화된 피부 조직들이 자신의 살들을 구성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사자라는 저항과 혁명의 단계로 이행해갈 수 없다. 화려하고도 위용 넘치는 용의 황금비늘 앞에서 눈부셔 고개 조아리던 낙타가 아니라 이제 그 비늘들을 한 톨 한 톨 뜯어내어 바스르뜨리는 행위가 메갈리안이라는 사자의 국면에서 실행되고 있다. 기존의 가치들-처녀성과 모성이라는 황금비늘을 뒤집어쓰고 있던 낙타²⁴⁾에서 이제 그 협착된 비늘들로 뒤덮인 자신의 살점을 할퀴어 잡아 뜯고 생채기 내지 않고서는 사자의 “아니오.”라는 저항의 외마디는 빚어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황금 비늘이 표피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게 생긴 작은 조각들, 편린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그 편린들의 비전체성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메갈리안이라는 사자-여성의 날카로운 발톱의 힘, 분노의 힘인 것이다. 즉 이렇게 분노로 들끓는 사자는 “아니오.”의 외침을 통해 진리의 이름으로 떠받쳐지던 세계 전체에 대한 부정은 물론 이러한 세계 위에 발 디디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을 통해 의미 질서와 문화 체계를 망치로 부수어 낸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 질서와 문화 자체가 아버지의 법질서의 파편들이며 벽돌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망치질은 극단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이며 모든 유의미한 것을 폐허로 이끔으로써 가치의 공백을 가져오고 마는

23) “그대는 해야 한다.라는 용은, 사자인 이 정신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누워있다. 그것은 비늘달린 한 마리 짐승으로 하나하나의 비늘에서 “그대는 해야 한다.”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번쩍이고 있다. 천년동안 거쳐 온 모든 가치가 비늘에서 번쩍이며 모든 용중에서 가장 힘센 이 용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물의 일체의 가치-그것은 내 몸에서 번쩍이고 있다.”라고.” F. Nietzsche, 『짜라투스트라』, 36쪽.

24) 메갈리안들은 여성 억압의 프레임을 내면화하는 방식을 “코르셋”을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것을 황금 비늘을 뒤집어쓰는 것이라는 니체의 수사학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부정적 자유의 양태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치의 폐허더미를 거치지 않고서 창조의 운동은 과연 가능한가. 사자의 포효와 저항의 몸짓을 치열히 구성해내는 메갈리안들은 가치와 덕목들, 진리가 이미 남근적 의미화 방식에 불과했음을 고발하며 이를 구토해 낸다. 이러한 구토는 낙타의 되새김질과는 다르다. 사자의 구토는 기존의 있는 것들의 반추와 소환이 아니라, 모든 내부성을 뒤집고 해집어서 바깥으로 쏟아내어 자신을 비워내고 세상을 비워내는 적극적 행위화이다. 이러한 비움 없이는 새로운 가치들이 도래할 미지의 대지도 구성될 수 없다.

낙타의 반추 행위에서는 동화와 소화가 일어난다면 구토에서는 소화와 동화의 거부가 일어난다. 외부의 것을 내부로 동화하여 소화시키는 내사(introjection)의 형태를 낙타가 구현한다고 본다면, 이에 반해 내부를 외부로 끄집어내는 투사의 형태가 사자에게서 일어난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즉 메갈리안들은 자신의 열등성에 대한 서사와 끝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파토스를 더 이상 스스로의 결핍과 결함이라는 내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근 질서의 구조적 폭력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점에서 이제 그들은 적극적 투사(投射, projection)를 드디어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항적 투사(鬪士, guerrière)로 나아가는 모습을 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페미니스트들²⁵⁾이 이러한 사자 단계의 메갈리안들에

25) 기존 페미니스트의 대표적 인물인 정희진은 남혐 현상을 계급의 문제로 치환하며 이것이 페미니스트적 화두가 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최근의 ‘남혐’ 현상은 계급 문제가 성별 이슈로 둔갑한 것이다. 여성혐오(비하, 무시, 차별)는 사회가 공유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다. ‘남성혐오’는 다르다. 여성 입장에서선 당신들도 겪어봐라, 라는 일시적 거울 전략(mirroring)이기도 하고, 일부 남성들의 퇴행적 호소이기도 하다(“여자들이 나를 미워해요”).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표적 현상 중 하나는 성별보다 계급 격차의 심화다. 계급 갈등을 ‘여성 문제’로 만들지 말라.” 정희진(2015), “여혐, 남혐, 이혐”, 씨네 21, 2015년 7월 28일 칼럼. 즉 정희진은 메갈리안의 저항을 일시적인 거울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미러링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계급 간의 갈등을 여성 문제로 오인한 구조에 불과하다고 주

대해 취하는 냉소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기존 페미니스트들은 관조(contemplation)라는 거리두기의 자세를 객관적 학문의 태도로 내면화함으로써, 메갈리안들이 촉발한 사건성에 몸을 내맡기기보다 그것의 소용돌이로부터 물러나 앉아있길 자처한다. 사건(événement)이 상황-사태(situation-état)로 경화될 때까지 몸을 사림과 동시에, 메갈리안들의 문제의식들을 이미 예전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다 제기되어진 고리타분하고도 철 지난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야말로, 니체가 그렇게도 비판한 거대한 용의 황금비늘을 뒤집어 쓴 양태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기존 페미니스트들의 태도는 “모든 것은 다 말해졌다. 모든 가치가 다 나에게 있다.”²⁶⁾를 되뇌이는 관습과 진리의 용, 그것의 황금비늘이 얼마나 자신의 살결에 뿌리 깊게 협착되어 있는가를 고백하는 낙타의 되새김질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말해졌다.”라는 태도는 페미니즘이 갖는 문제의식이 얼마나 저항적 주체화 양태의 새로운 도래를 매순간 촉발하는 것인지를, 또 얼마나 차이의 운동이 격렬히 일어나는 장인가를 탈각시키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은 단 한 번도 영원불멸의 “혈빛은 반복”, 고착화된 반복을 실행한 적이 없다. 메갈리안들이 재구성해낸 문제의식들은 영원회귀라는 “웃 입은 반복”²⁷⁾, 끝없는 불

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에 대한 저항적 행위화를 시도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남성 혐오가 아닌 분노의 정치화이며 여성 혐오의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밝히는 일인지를 전혀 분석하지 않은 채, 메갈리안들이 일부분 남성혐오 구조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희진은 메갈리안들이 새로운 페미니즘적 전략성을 기획,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탈각시키고 만다.

26) F. Nietzsche, 『짜라투스트라』, 36쪽.

27) 영원불멸과 영원회귀는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전자가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일자의 귀환을 촉진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차이만이 생산되는 역동적 운동으로서의 반복이다. 들뢰즈는 혈빛은 반복을 영원불멸의 구조를 공고히 하는 “같은의 반복이며 정태적 반복”으로 웃 입은 반복을 영원회귀라는 차이의 생성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강도적 반복이고 동태적 반복”으로 본다. 이러한 혈빛은 반복과 웃 입은 반복은 『차이와 반복』 73

일치와 미끄러짐을 통해 동일성의 원리를 파기하는 차이의 반복만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80-90년대, 2000년 초반의 페미니스트들과는 달리, 메갈리안들은 SNS라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을 통해 탈중심화되어 있으면서도 더욱 유동적인 확산성을 통해 페미니즘적 이슈들을 소통시키고 나아가 이를 논쟁의 지점으로 효과적으로 부상시켜 공론화하는 파장의 힘을 갖는다. 나아가 기존의 페미니스트 세대는 처녀와 걸레, 모성과 창녀라는 이분법적 위계 범주에 부딪혀왔다면 이제 메갈리안들은 더욱 세밀해지고 분화된 여성 혐오의 이름 짓기들—김치녀, 무개념녀, 된장녀, 맘충, 김여사 등에 매순간 포박되고 낙인찍히는 일상에 노출되어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메갈리안들의 저항적 행위들은 이미 다 말해져버린 낡고 진부한 물음 다발들의 되새김질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메갈리안들은 어떠한 측면에서 기존 페미니스트들마저 내면화하고 답습해 버린 남근적 언어를 탈구시켜 온몸으로 진동하고 진통하는 언어를 구성해내는가.

2) 고체의 언어와 점도-유연성의 언어

고체의 언어가 명확한 분할의 언어로서 고유하고 적합한 몸, 깨끗한 몸(corps propre)을 양산해내기 위한 장치라면, 이에 반해 점도-유연성의 언어는 진흙탕에 나동그라지길 두려워하지 않는 언어이자 부적합하고 더러운 몸(corps impropre)들이 우글대고 들끓어 봉기하는 언어이다. 고체의 언어는 개념적 규정성과 도덕적 규범성에 의해 명확하게 경계 지어진 것을 우등-가치화하는 반면, 경계가 모호해진 것에는 혐오의 파토스를 각인하여 낙인적 범주 안에 응고시켜 버리려 한다. 필자는 가치화(valorisation)의

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비교,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들뢰즈의 개념들을 차용해음으로써 메갈리안들의 페미니스트적 문제의식들을 동태적이며 차이를 생산해내는 반복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방식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보통 dévalorisation을 비가치화로 번역해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는 이것을 가치화 방식의 하나인 열등-가치화로 본다. 열등-가치화는 우등-가치화와 함께 수반되는 가치 평가 방식인데 여기서 우등-가치화란 특정 요소들을 본래적이며 자연적인 것, 덕목에 가까운 것으로 우월하게 여김으로써 승인의 자리를 점유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열등-가치화는 특정 요소들은 인위적이며 왜곡된 것, 덕에 위반되는 것으로 열등하게 여기게 함으로써 배제의 위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즉 열등-가치화든 우등-가치화든 간에, 표상 질서 내에서 긍정 혹은 부정이라는 가치치의 기입면으로 축소된다는 점에서 개념과 표상의 덧입힘 양식에 불과하다고 필자는 분석한다.

이러한 언어의 대표적 예는 일간 베스트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녀와 김치녀라는 분할의 언어로서 전자가 경제적 독립성과 정서적, 성적 의존성이라는 모순적 조건의 완결체로 욕망하기의 적합함에 들어맞는 것이라면 후자는 “설치고, 떠들고 말하고 생각하는”²⁸⁾ 자기 욕망의 발화자들로서 언제든지 전자의 조건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도 강등될 수 있는 범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혐오의 언어는 열등-가치화된 범주로서의 욕설과 낙인의 이름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칭적 범주로서 우등-가치화된 이름과 자리를 생산해 낸다. 우등-가치화된 이름에는 순수성이라는 덕목이 부여되어 깨끗한 몸의 위생성 안에서 보호 대상이 된다면, 열등-가치화된 이름에는 더러움과 오염도가 측정, 부가되어 박멸과 격퇴의 대상이 된다. 그 열등-가치화된 이름이 바로 김치녀와 원정녀, 된장녀, 김여사, 낙태충, 보슬아치, 맘충 등인 것이다. 열등-가치화된 범주가 우등-가치화된 영역보다 훨씬 더 넓음으로써 우등-가치화는 희소성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열등-가치화로 하향 조정될 위협, 다른

28) 장동민은 지상과 tv방송에서 자신이 혐오하는 여성이 바로 “설치고 떠들고 생각하고 말하는” 여성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이러한 낙인범주가 오히려 SNS상의 페미니스트 선언 문구로 변환되어 새로운 의미화 양태로 사용되고 있다.

말로는 열등 가치화의 방식에 포섭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열등-가치화된 범주는 박멸의 대상으로 지정되지만 결국은 적출 불가능한 중핵으로서 자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등-가치화된 범주는 배제의 영역이지만 아 이러니컬하게도 이 배제가 승인을 위한 참조점으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즉 개념녀는 창녀스럽지 않음이며 소비와 허영의 영역에서 초연한 이며 남성의 자존심을 뭉개지 않는 이로 낙인 범주의 여집합이라는 부정적 구성 방식을 취한다. 개념녀의 정의방식은 창녀와 허영녀, 된장녀라는 낙인 범주의 대한 정의의 선재성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해 가능한 것이다. 자신이 개념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김치녀가 아님을 증명해 내어야 하며, 이는 김치녀라는 기표가 어떠한 기의로 채워져 있는 지에 대한 의미론적 천착을 요구한다. 또한 김치녀에 대한 비껴나가기 전략을 설령 구사한다 할지라도 김치녀의 기표는 지속적으로 확장됨으로써 개념녀의 기표를 그 여분으로서만 산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승인은 배제 효과의 그 나머지, 찌꺼기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등-가치화된 범주가 승인된 범주의 짜투리가 아니라, 오히려 승인 지점이 배제 지점에서 도출된 이차 효과라고 필자는 분석하게 된다.

기존의 의미 지형학 안에서 정상과 비정상,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분법적 위계화 방식은 비사유로서의 외부성에 대한 배격이었다면²⁹⁾, 필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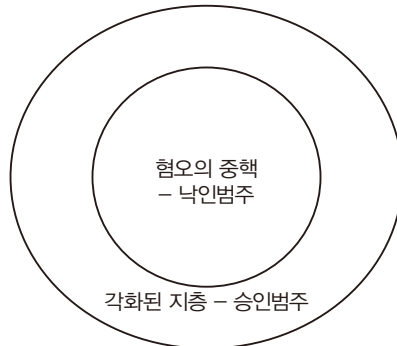
29) 푸코는 *La pensée du dehors*(『외부의 사유』)라는 저서를 통해 외부를 “몸이나 공간, 타자의 지을 수 없는 현존에 대한 경험으로 그려질 수 있다”고 본다. “Le dehors est esquissé comme expérience du corps, de l'espace, de la présence ineffaçable d'autre.” M. Foucault(1986), *La pensée du dehors*, Montpellier: Fata morgana, p. 21, 그리고 “외부는 결코 자신의 본질을 누설하지 않으며 실증적인 현존처럼 주어질 수 없는 것이자 자기 고유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의해 내부로부터 빛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물러선 부재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외부를 상술하고 있다. “Le dehors ne livre jamais son essence ; il ne peut pas s'offrir comme une présence positive, chose illuminée de l'intérieur par la certitude de sa propre existence, mais seulement comme l'absence qui se retire

분석하는 혐오의 언어는 이러한 위상학적 좌표를 비틀어 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기존 형이상학의 인식론과 존재론, 가치론은 내부성에 대한 고양의 역사였기에, 외부성이란 사유할 만하지 않은 것, 즉 인식할 수 없기에 존재할 수도 없는 가변적이며 불확실한 것으로 내몰려 비사유의 지대를 구성한다고 여겨져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부는 내부에 비해 후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자 내부의 찌꺼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외부와 내부라는 공간 지형학이 혐오의 언어에서는 역전됨을 보여주고자 한다. 혐오의 중핵으로서의 낙인 범주가 예전의 형이상학의 언어에서는 비본질과 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부성을 구성하는 것이었다면, 혐오의 언어에서는 바로 이것이 중핵이자 내부성, 먼저 오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혐오의 언어에서 낙인 범주가 먼저 오는 것, 선재하는 내부성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이상학적 존재론과 가치론에서 외부성으로 공간화 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내부성으로 전환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혐오의 언어는 “조직화의 판(*le plan d'organisation*)과 전개의 판(*le plan de développement*)”³⁰⁾에서 벌어지는 것으로서 각화 작용인 지층화(*stratification*)—개념적 규정성과 도덕적 규범성—작업을 통해 승인 범주를 표층화된 지각판 위로 밀어 올려 이것을 전시하고 가시화하는 반면, 중핵에 해당하는 혐오의 응축소로서의 낙인 범주는 심층화된 내부의 응결점으로 자리잡게 한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혐오의 언어는 아래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즉 필자는 혐오의 언어를 두 개의 원이 겹쳐진 형상으로 도식화하고자 한다. 내부적 원이 혐오의 중핵으로서의 낙인 범주라면 이러한 낙인 범주의 내부성은 승인 범주보다 먼저 오는 선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낙인 범주를

au plus loin d'elle-même.” M. Foucault, *La pensée du dehors*, p. 28.

30) ‘조직화의 판’과 ‘전개의 판’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Mille Plateaux*(『천개의 고원』)의 붙어본 330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통해 그 나머지로써 도출되는 여집합이 승인범주이자 이것은 혐오의 언어에서 가장 가시화되어 전시되는 것 같지만, 결국 승인 범주는 낙인 범주의 확장적 팽창성에 의해 재흡수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조직화의 판과 전개의 판에서의 혐오의 언어〉

여기서 조직화의 판이란 유기체적 논리로 위계화되어 배열된 공간이며 전개의 판은 진화의 이념을 구현해내는 발전적 상태를 전제한 공간이다.³¹⁾ 이러한 기능주의적 위계성과 발전에 대한 순차주의적 축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 바로 혐오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혐오의 언어는 기능주의적 분할 논리와 이에 대한 위계 논리를 정확히 내포하는데 그 예로 창녀와 성녀라는 이분법이 있다. 전자가 이기적, 소비 지향적, 파괴적 존재라면 후자는 이러하지 않은 여성으로 정의되며, 전자가 쾌락의 배출소라는 기능으로 격하된다면 후자는 결혼할 만한 여성, 즉 어머니와 아내라는 기능과 자리가 부여되는 이다. 또한 혐오의 언어는 처음에 오는 것이 나중에 오는 것보다 덜 발전되고 덜 진화된 상태로 규정되어 극복의 대상이 되는 발전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따른다. 그러하기에, 창녀는 처녀를 규정하기 위한

31) 윤지선,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 용어 분석론 : 지질학적 공간의 탐사 작업으로서의 철학』, 9쪽.

선재향이지만 이러한 선재성은 후차성에 의해 극복되어야하는 미개성인 것이다. 이처럼 혐오의 언어는 낙인 범주를 이분법적 의미 질서의 내부성에 위치시키는 반면, 우등-가치화된 승인의 영역을 외부, 표피로서 구성해 내는데, 이것은 열등-가치화된 것을 우선적으로 응축, 응고시킴으로써 시작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배제가 중심점이며 승인이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승인은 딱딱해진 지각판에 해당하며 배제는 그 핵(noyau)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견고한 지각판으로 가까스로 올라서는 것이 개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며 언제나 그것의 가장자리성은 혐오의 중핵으로서의 낙인 범주에 의해 정의되며 포섭되고 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예로 최근 논란이 된 웅달샘 팟 캐스터 여성혐오발언³²⁾을 날카로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장동민과 유상무, 유세윤은 ‘개보녀’이라는 낙인범주를 생산해 내는데, 여기서 개보녀이란 비처녀, 즉 성행위를 한 여성은 모두 더러운 몸들이자 욕망할 만하지 않은 혐오스런 몸이라는 의미이다. 개보녀는 처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처녀는 개보녀이지 않은 것, 그럼으로써 욕망할 만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들이 정의하는 개보녀와 처녀의 대립구조는 분절 논리로서의 혐오의 언어판을 그대로 따른다. 왜냐하면 개보녀는 열등적 가치화 방식이자 처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방식의 준거점으로 혐오의 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처녀는 우등-가치화 방식이자 개보녀의 여집합, 즉 개보녀이라는 개념에 의해서만 도출되는 부가적 의미 효과로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명 행위는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전제들을 바탕으로 작동하는가. 그들에게 있어, 모든 성적 실천들은 ‘삽입’이라는 남성 중심적 정복행위이자 처녀성의 박탈로 축소되어 버린다. 그러하기에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은 끊임

32) 2013년 인터넷 팟 캐스터 방송인 웅달샘의 꿈꾸는 라디오에서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는 여성에 대한 낙인범주를 매우 강화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것이 2015년 4월에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임없이 혐오의 대상으로 강등, 추락되고 마는 역설적 구조를 뚫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행위 역시 비처녀를 낳는 혐오의 생산방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전제하는 창녀, 처녀 이분법 프레임에서 처녀는 비처녀로서만 오직 성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것이기에 여성은 오직 창녀로서만 접근 가능한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에게 여성은 창녀이며 창녀일 수밖에 없으며 창녀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처녀와 창녀 이분법은 곧 창녀 일원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엄마라는 존재마저도 창녀 일원론의 논리에서 비껴 나갈 수 없는 이로, 모든 여성은 혐오와 비하의 대상으로 일반화되고 만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웅달샘 팟 캐스터의 여성혐오 발언은 기존의 창녀 프레임과 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창녀 프레임은 엄마와 창녀, 성녀와 창녀로의 구분을 통해 엄마라는 자신의 존재 기원을 혐오가 투입될 수 없는 보루이자 예외 지점으로 보존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웅달샘 발언에선 쾌락을 위한 것이든 재생산을 위한 것이든 간에 성행위의 소비자로서의 여성은 모두 창녀로 범주화되고 만다. 그러하기에 웅달샘이 양산한 낙인 범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의 언명 방식이기도 한 것이라고 필자는 분석한다. 즉 웅달샘 여성혐오 발언자들은 성적 실천을 삽입으로만 한정하는 자신들의 빈곤한 성적 실천 방식 안에서 창녀만을 궁극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또한 발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자기혐오가 분출되는 방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욕설의 응축소로서의 그들의 발화는 웃음코드가 아닌 폭력의 코드화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웅달샘 팟 캐스터 진행자들은 여성의 생존술에 대해서까지 조언하려 한다. 여성은 자신의 성적 경험을 발화해서도 안 되며 성적 무지를 표방해야하며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에 대한 권리 요구를 포기해야만 처녀성의 퍼포먼스에 그나마 합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언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언설 행위는 이 사회에서의 여성 생존술이 가장 효과적

인 자기 박탈술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혐오의 언어는 김치녀와 개념녀, 처녀와 비처녀라는 대립적 개념쌍을 통해 그 의미 효과가 도출되는 이분법적 언어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언어질서는 낙인 범주라는 혐오의 핵 안으로 승인의 향을 언제든지 흡수, 통합해 버릴 수 있는 일원론의 얼굴을 이면으로 지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혐오의 언어가 일원론의 얼굴을 이면으로 삼고, 정면에서는 승인과 낙인이라는 두 가지 가치치를 기입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효과가 도사리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혐오의 언어가 존재의 질서를 배제만이 아닌 순응화(domestication)의 지대로 보기 때문이다. 일상에 만연한 혐오의 언어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내면화되는 데에는 바로 상벌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월한 가치치의 기입면으로서의 순응화는 승인의 날인을 받았다는 확신을 안겨줌으로써 소속감과 정체성 등이라는 지각판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안착의 느낌은 견고한 지각판 위에 발 딛고 서있음에 대한 감각이며 혐오의 화살을 비껴나갈 수 있다는 안도와 안전의 욕구이기도 하다. 여기서 안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파토스인가. 안도한다는 것은 공포의 감정과 맞물려 있다. 즉 강등과 추락에 대한 공포는 혐오의 중핵, 그 심연으로 내동댕이쳐질 수 있다는 위협감이다. 하지만 이 위협감은 남근적 의미 효과로서의 분절 논리—개념녀와 김치녀 간의 적대성과 대립성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면화를 통해 상쇄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믿음은 혐오의 중핵이 갖는 지속적 확장성에 의해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념녀는 탈 김치녀라는 김치녀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하며 김치녀에 대한, 김치녀를 향한 강박적 내달리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³³⁾

33) 2015년 8월 19일 여성 래퍼들 키썬과 제이스가 '심에 안착'라는 신곡을 발표하며 김치녀에 대한 공격을 통해 개념녀로서의 그들의 변별적 위치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남성들로부터 찬양받는 위상을 점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인스타

3) 메갈리안의 언어는 일베 언어의 복사판인가?

그렇다면 메갈리안의 언어는 혐오의 언어의 재유통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다면 왜 메갈리안의 언어는 기존의 혐오의 언어보다도 더 격렬한 거부감의 대상이 되는가. 왜냐하면 메갈리안의 언어는 기존 문법을 따르는 정제된 합리성의 각화 작업 대신, 날이 서고 설익었으며 끈적끈적한 유동화 작업에 내던져진 언어이기 때문이다. 비린내가 진동하고 분노로 으르렁대는 이 농밀한 언어에는 순응화의 기제를 통한 승인의 날인이라는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마냥 공격적이지만 한 언어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메갈리안의 언어는 가치화된 이름, 고양된 범주들을 규정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메갈리안의 언어에는 개념녀에 대응하는 개념남이라는 이상화된 남성 범주가 설정되어있지 않기에, 개념남과 김치남 간의 대립 구도 역시 재현될 수 없다.³⁴⁾ 왜냐하면 메갈리안들은 혐오의 언어에서 열등-가치화된 이름들의 번역어—김치남, 숨쉴한³⁵⁾, 씹

그램 등에 게재된 명품 선물을 인증하는 사진들에 의해 그들이 가사에서 공격하는 김치녀의 남성 의존적 소비욕을 그대로 재현해냄으로써 그들 역시 탈김치녀가 아닌 김치녀에 불과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많은 이들로부터 그들 곡이 겨냥하는 공격의 칼날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 여성 단죄효과를 강화하는지를 드러내며 스스로가 그 단죄의 칼날에 베이는 효과를 아이러니컬하게도 도출시키고 만다. 즉 탈김치녀라는 좋은 여자, 참된 여자라는 이상화된 표상은 어떻게 해서도 가닿을 수 없는 규범적 픽션(*fiction régulatrice*)으로서 이 규범적 표상이 여성의 어떠한 행위도 죄책감과 자기 힐난의 구조 속에 갇히게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 34) 갓양남-김치남에 비해 모든 것이 뛰어난 서양 남성이라는 용어는 메갈리안들이 이상화하는 개념남의 양태가 아니라, 한국 남성들이 이상화하는 스시녀라는 용어에 대한 번역어이다. 다시 말해,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에게 투사하는 이상적 대상화 방식으로서의 스시녀라는 명칭에 대한 풍자가 갓양남인 것이다. 스시녀라는 범주에서 일본 여성은 성적 개방성과 정서적 복종성, 순응성을 지닌 이로 묘사되며 이 범주에는 한국 남성의 인종적, 민족적, 성별적 편견성이 특정 국가의 상상적 여성상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 35) 김치남은 김치녀의 번역어이며 숨쉴한은 삼일한의 번역어이다. 삼일한이 삼일에 한 번씩 여자는 때려야 한다는 관습적 언어를 비틀어서 남자는 숨 쉴 때마다 맞

치³⁶⁾ 등을 직접 길어 올려 그 흙으로 그것들을 빚어내지만 그 빚어진 농도성의 언어에는 우등-가치화와 열등-가치화의 이분법적 대립 논리가 이미 털어 내어져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번역어(變易語)는 번역어가 아니다. 번역어란 고쳐서 바꾸어 쓰는 언어라는 의미로 교정과 개화라는 변형과 변화의 작업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번역어는 각기 다른 언어 구조에서 유사성을 최대한 살려 의미를 대응시키고 이를 보존, 전수하려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필자는 메갈리안의 언어를 번역어라는 혐오의 언어의 의미 대응소를 양산해내는 장이 아닌 번역의 장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갈리안들의 언어는 혐오의 언어와 정확히 대칭되는 언어, 즉 혐오의 언어에 대한 단순 모사물이 아니다. 메갈리안의 언어는 원본에 충실한 copy(카피)로서가 아니라 simulacre(시뮬라크르)라는 전복적 허상으로 순응화의 기제라는 이상화된 승인 범주를 산출해 내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메갈리안의 언어는 혐오의 언어의 원본성—승인과 낙인, 이상화와 혐오화가 하나의 짝패를 이루며 같이 가동되는 것—을 비웃으며 이에 파국을 도입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베의 언어는 여성 숭배와 여성 혐오의 메커니즘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언어이다. 이러한 숭배와 혐오의 기제를 통해 여성을 범주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이분법적 가치화 방식에 대한 내면화 방식이자 이러한 가치들의 분배자로서의 특권적 위상을 점유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개념녀와 김치녀의 이분법적 식별 작업은 과연 무엇을 겨냥하는가. 이것은 여성들 간의 정치적 연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의 적을 여성으로 돌림으로써 여성 각자는 다른 여성들과 상상적 적대관계를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이 함께 연대하여 정치적, 윤리적 행

아야 하는 존재라고 되받아친다.

- 36) 씹치는 씹과 김치남의 합성어로서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욕설에 대한 번역어라 할 수 있다.

위화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즉 여성을 두 범주로 구획하는 것은 여성들 간의 연대를 통한 저항의 거점이 생성되는 가능성 자체를 적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메갈리안의 언어는 남성들 사이에 이분법적 분할선—김치남과 개념남을 도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메갈리안들은 숭배와 혐오라는 기존 가치의 프레임 안에서 이중 분절화된 가치들의 분배자로 머물기보다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들의 도래를 위해 자기 자신의 변형과 세계의 변형을 겨냥하는 주체화 양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갈리안들은 남성들에 대한 이중적 범주화를 적용하는 대신, ‘갓치’라는 용어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가부장적 여성 혐오 사회의 일상적 규범과 예절들, 승인되는 감정의 양태를 효과적으로 문제시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나아가 개념녀라는 통제기제에 대한 내면화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저항적 주체화 양태들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나아가 메갈리안의 언어는 딱딱한 고체의 상태도 주르륵 흘러내려 버리는 액체의 상태도 아닌 것으로 끈적끈적하게 들러붙기와 한시적 응집성, 그리고 이것의 유동적 해체로 일렁이는 언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점도-유연성이란 유체 운동을 주르륵 흘러버리게 하지 않고 이를 일정 텐션으로 잡아둘 수 있는 힘의 상태이자 유체를 끈적거리게 하고 응집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점도-유연성이란 일정 텐션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형태가 생겨났다가 다시 뭉그러져 흘러져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갈리안의 점도-유연성의 언어는 농도 맞추기, 스며들여가기, 부수기, 으깨기, 녹이기, 뒤집어 엮기, 번져나가기, 한시적 응집력 모으기라는 전략성을 구사한다. 첫 번째로 메갈리안의 언어는 견고한 밀도의 응축소가 아니기에 일상에 만연해 있는 혐오의 농도에 그 점도성을 맞추어냄으로써, 여성혐오의 언어판을 비집고 스며들여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여성혐오의 언어가 경화된 정제선—음담패설의 독점적 발언권과 낙인적 명명하기, 여성에 대한 열등성의 자연화, 본질화 논리, 남성 역차별 담론—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정체선의 견밀도를 여러 조각들로 부수어서 그 분할선을 으깨버리는 전략을 취한다. 혐오의 언어판은 각화된 지각판으로 지층화라는 분절 작용을 통해 축적으로서의 퇴적 작용—의미 쌓아올리기—을 강화해 왔다면, 이러한 혐오의 지각판에 지진을 도입하는 것이 점도-유연성의 언어이다. 이러한 진동의 파동으로 으깨지고 휘어진 분할선의 판에서 혐오의 언어에 대한 정당성은 가차 없이 녹아내리는데 이것은 여성혐오의 낙인적 이름짓기를 변역(變易)³⁷⁾해서 이를 남성이라는 범주에 뒤집어 끼얹는 유동성에 의해 이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만다. 이를 통해 “이것은 여자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라는 경악에 찬 반응을 이끌어내며 언어가 더 이상 정체성과 소속성에 대한 확인 표지가 될 수 없음을 직시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혐오의 언어 위로 분노의 언어가 들끓어 번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번져나가기에 여러 정치적 행위화—네이버 해피빈 모금 운동을 통한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기금 운동, 소라넷에서 대대적으로 유통되는 몰래 카메라에 대한 형법적, 민사적 처벌방안촉구, 여성혐오조장 광고 투표와 이를 통한 소비자 압력 행동, 메갈리안 팔찌 수익금 전액을 미혼모를 돕는 기금으로 기부, 맥심 9월호 커버 사진에서 드러난 여성 살해의 낭만화에 대한 격렬한 문제제기를 통한 전람회수 결정 유도, 소라넷 폐지 운동 등—을 위한 한시적 응집성의 양태들로 구성되어져 나가고 있다. 메갈리안들이 쓰는 점도-유연성의 언어는 “조성의 판, 점성의 판”(plan de consistance)³⁸⁾에서 벌어지는 작용이라고 필자는 분석한다. 그렇다면 조성의 판, 점성의 판은 무엇인가.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이 “점성판은 유기체적 조직화의 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멈추질 않으며 입자들을 지층 밖으로 탈주시키고 빠름과 느림의

37) 변역은 고치어 바꾸어버림이라는 뜻이다.

38) 필자는 plan de consistance를 내재성의 구도나 혼효면, 고른 판이라는 번역어 대신 조성의 판, 점성의 판이라는 윤지선의 번역어를 따른다.

속도감을 통해 형태들을 교란시키며, 배치와 미시적 배치들을 통해 기능들을 깨부수는 것이다.³⁹⁾ 즉 조성의 판에서 벌어지는 메갈리안들의 농도의 언어는 기능주의적 위계질서와 순차적 발전 논리가 전제하는 선형적 목적성을 추구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조합-응집 게임(jeu de combinaison-cohésion)”⁴⁰⁾을 펼쳐내며 정치적 행위화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동성을 지닌다. 이것은 정상적 주체, 신경증적 주체, 즉 상징계라는 아버지의 법질서에 정박해버린 주체가 아니라 이러한 정박소로서의 지각판 자체가 얼마나 유약한 것인지를 드러내며 지각판 위로 기어 올라가 발붙이려는 개념녀 또한 얼마나 커다란 환상-직조물인가를 통렬히 드러내어 보인다.

협오의 언어가 이중적 원이 겹쳐진 공간화 양태⁴¹⁾라면, 이에 반해 점도-유연성의 언어는 얼룩과도 같은 비정형적 형상으로 주름(pli)들로 굽이쳐 있기도 하고 휘어져있으며 번짐과 응고, 이것의 용해 등이 일어나는 유동적 장이라고 필자는 분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갈리안들은 여성협오 논리의 저열함에도 고상한 설명력을 갖춰 차분하고 정숙하게 대응하는 숙녀분이 아니라 진흙탕 바닥에 함께 나동그라지며 여성 협오자들이 퍼 넣어 놓은 저열성의 흙을 차용해, 되려 그들에게 마구 퍼 먹이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이다. 진흙탕 같은 여성협오 발언들의 난무에 차마 더럽혀지

39) “Et, inversement, le plan de consistance ne cesse pas de s’extraire du plan d’organisation, de faire filer des particules hors strates, de brouiller les formes à coup de vitesses ou de lenteur, de casser les fonctions à force d’agencements, de micro-agencements.” G. Deleuze(1980), *Mille plateaux*,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p. 330, 이에 대한 번역은 윤지선의 번역을 차용해 왔다.

40) 윤지선은 9페이지에서 조성의 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성의 판은 선형적 질서도, 목적(finalité)도 부재한 판으로, 수평적 관계의 차원에서 무한결합, 접속, 배치가 가동되는 일련의 조합-응집 게임(jeu de combinaison-cohésion)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각적이며 한시적인 조합과 유동적 응집성을 지닌 채 가동되기에 유연성의 장에 항상 열려있는 것이다.” 윤지선,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 용어 분석론 : 지질학적 공간의 탐사작업으로서의 철학」, 9쪽. 필자는 메갈리안의 언어가 이러한 조성의 판에서 가동하는 것이라고 본다.

41) 각주 20의 도식을 참조하라.

는 것이 두려워 “나는 된장녀가 아니라 개념녀이다”를 끊임없이 인증해야 했다면, 이제 메르스 갤러리에선 더러워지는 것 따위 패념치 않고 점도-유연성의 농도를 풀어내며 여성혐오 논리의 빈곤함을 되받아친다.

여기서 점도-유연성은 점탄성(粘彈性)과 다르다. 점탄성(viscoelasticity)은 탄성이라는 고체의 역학적 성질과 점도라는 유체적 성질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점도의 흐름(flow)을 가지면서도 변형의 원인이 되는 힘을 제거하면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는 능력인 고체의 탄성 변형력을 갖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점탄성은 점도-유연성과 구분된다. 왜냐하면 점도-유연성은 복구되어야 할 원형적 형태를 전제하지 않는 유동적 응집과 이의 해체 과정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메갈리안의 언어가 점탄성이라는 원형적 형태의 복구와 복원력을 갖추지 않기에 일베 언어를 원형화하여 이를 그대로 모사함으로써 혐오라는 파토스의 증식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혐오라는 파토스는 증오의 중핵이 단단히 자리 잡혀 있는 고체적인 것이라서, 이러한 적대성의 실체에 대한 규정과 명명행위가 항시 수반되는 것이다. 즉 혐오는 이미 개념적 규정성과 도덕적 규범성을 정제하고자 하는 상징계라는 의미화 질서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메갈리안의 언어는 혐오가 아닌 불안의 정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일베의 언어에 대한 충실한 사본이 아니다. 여기서 불안은 우리에게 역함과 밀쳐냄이라는 제스처를 유발한다. 다시 말해 불안은 *haine*로서의 증오/혐오가 아닌 *répugnance*와 *dégout*라는 역함, 밀쳐냄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것은 악취를 풍기거나 상한 음식, 시체 등이 속을 뒤집어놓아 바깥으로 모든 중심이 쏠리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불안은 물질성으로 넘쳐나는 사물(*das Ding, la chose*)과의 접촉과 뒤섞임에 의해 유발되는 정동이며 나아가 실재(*le réel*)의 소용돌이 앞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에 사물이란 언어로 규정되거나 기표로 추상화되어 그 물질성이 다 떨어내어질 수 없는 축축한 과잉을 뜻한다. 즉 사물은 언어로 포착되어 한계지어지고 지칭되어 가리켜질 수 없

는 것, 의미의 겨냥을 항상 비껴나가는 것으로서 실재라는 비의미와 무의미, 죽음과 성의 장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갈리안은 결코 여자 일베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메갈리안의 언어는 일베 언어를 원형적 표본으로 삼아 이를 그대로 복구하는 점탄성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베의 언어를 다양한 반사각을 통해 일그러뜨리고 휘어지게 하여 한계적 시야의 파탄성을 꼬집어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불안의 정동을 유발시키고 만다.

일베는 메갈리안들을 김치녀의 전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억압함으로써 자기 존속의 근거로서의 혐오의 대상들을 끊임없이 지칭하고 명명해 내고자 한다. 일베는 자기 보존욕으로 추동되는 집단으로서 신화적 폭력·법 보존적이지자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적 폭력⁴²⁾을 구사하는 이들이다.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보존과 유지에 매달리는 일베들에게는 원래의 자리, 본래적 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의 탈취된 힘의 지점들을 새로이 융기시키고자 하는 소수자들이다. 이에 반해 메갈리안들은 자신의 존립 자체의 항구성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혐오 현상의 종식과 더불어 스스로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베와의 공멸을 유도해내고자 하는 신적 폭력·혁명적, 법 파괴적 폭력의 구사자들이다. ‘전부 아니면 무’를 향해 자신을 내던져 체제는 물론 자기 자신마저 분쇄해 버릴 수 있는 이들이 신적 폭력이라는 혁명적 힘을 추동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메갈리안들은 자기 보존적이기 보다 오히려 자기 파괴적 성격을 내포한다. 나아가 메갈리안들을 여자 일베로 등치시키는 것은 메갈리안들이 구사하는 반사경 전략이 어떠한 다각적 반사 원리와 반사 효과

42)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은 발터 벤야민의 『폭력비판을 위하여』라는 저서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전자가 법정정적, 법 보존적 폭력으로 보수적 사회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법 파괴적, 혁명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신화적 폭력이 법 정립적이라면 신적 폭력은 법 파괴적이고 신화적 폭력이 경계를 설정한다면 신적 폭력은 경계가 없다.” W. Benjamin(2008), 『폭력비판을 위하여』,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111쪽.

를 내포하는가를 간과하고 마는 것이다.

3. 메갈리안의 미러링 전략, 그 반사 원리에 대하여

왜 일베는 메갈리안이라는 반사경 앞에서 경악하는가. 우리에게 있어 존재와 이미지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인데 다른 몸의 부위들과는 다르게 얼굴만은 거울에 의해서 이미지로 구성될 때에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자와 세계, 자신의 발과 팔, 몸통 등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얼굴에 위치해 있는 이상,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역설이 인간을 구성한다. 바로 이러한 역설을 통해 우리 존재가 이미 이미지의 구성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울단계⁴³⁾의 아이는 얼굴이라는 마지막 미지의 이미지 조각을 거울을 통해 완성하게 됨으로써 이미지-존재로서의 자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해석하는 바이다. 즉 분절된 신체 이미지는 마지막 빈 칸으로서의 얼굴 이미지의 공백을 거울이라는 반사체를 통해 채워낼 때에 통합된 신체 이미지로서의 자아를 낳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베는 자신의 얼굴을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 앞에 비추어 바라볼 때에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완성된 신체 이미지로서의 자신의 얼굴 앞에서 일베는 경악의 외마디를 내지르는데 이것은 마치 메두사가 자신의 얼굴에 돌처럼 경화되어버린 것과 같은 외마디이다. 메두사는 자신의 얼굴을 페르세우스의 방패를 반사체

43) 프로이트는 거울 단계를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이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파편화된 신체 이미지에 통합성을 얻게 되어 자아를 구축하게 되는 단계로 정의한다. 거울 앞에서 통합적 신체 이미지를 보고 환호하는 아이를 묘사하는 프로이트는 이 환호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자세히 기술하지 않으나 필자는 이 통합적 신체 이미지의 완성이 자기 자신에게 미지로 남아있던 얼굴 이미지가 시각화의 장으로 들어왔을 때라고 해석한다.

삼아 확인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전체적 이미지의 완성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의 실체가 확인된 순간, 죽음으로 내동댕이쳐진다. 일베는 메두사와 같이 자신의 존재가 이미지로 완성되는 순간 경악하게 되며 바로 그 경악의 반사체가 메갈리안인 것이다.

그렇다면 메갈리안이라는 반사경은 과연 어떠한 반사 원리를 가지는가. 왜냐하면 거울구조는 비추는 것과 비추어진 것 간의 동일적, 합치적 일치 구조가 아니라, 이미 대칭과 변형, 왜곡, 무한 반사의 다양한 반사 원리를 통해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메갈리안의 미러링 전략은 일베에 대한 충실한 답아냄이 아니라, 이미 거울 구조의 반사 원리가 함유한 변형의 스펙트럼을 통해 일베라는 현상을 통렬히 꿰뚫어내되 그 너머의 무엇을 도래시키고 마는 것이다. 바로 ‘그 너머의 무엇’이 문제적인 것이기에, 사람들은 메갈리안이라는 반사경 앞에서 유독 불유쾌하고 불편해 하며 불안해하고 만다. 왜냐하면 이 반사경은 지각의 동일성에 대한 보장 대신 역설적 이미지를 출현시키고 말아, 우리의 안온한 현실을 순식간에 흉물스럽고도 낯설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일성의 궤적에서 끊임없이 이탈되고 마는 미끌림의 운동을 수반하는 것이 거울의 반사 효과인 것이다. 거울은 평면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거울들 중 어느 것도 동일성의 원리에 기여하는 것은 없다. 이미 대칭과 휘어짐, 뒤틀린 상의 상하 반전, 좌우 반전, 크기의 축소와 확대 등을 수반하는 변형의 장이 바로 거울의 구성 원리인 것이다. 즉 메갈리안이라는 반사경을 일베와의 동일체로 보는 것은 거울의 반사 원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갈리안의 미러링이 구사하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평면거울의 반사 효과, 이미지의 좌우 반전 현상이다. 여성혐오의 코드들을 비추어내되 그것이 뒤틀린 상의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대칭되어 반대로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통해, 여태껏 매끄럽고도 당연하게 읽혀지던 여성혐오의 메시지들—남성이 군대를 가는 것은 다 여자 때문이며 여자가 남자의 피

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⁴⁴⁾—이 얼마나 무논리적이며 모순으로 가득 찬 증오의 암호들인가를 드러낸다. 또한 메갈리안의 미러링 전략은 물체의 상을 축소하되 보다 폭넓은 지평을 가시화하게 하는 볼록 거울 효과를 구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반사 효과를 통해 여성혐오 현상들이 개인적 불운이나 예외적인 경험이지 아닌,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펼쳐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든다면 몰래 카메라 촬영을 철없는 사춘기 소년의 치기어린 행동이자 혼자서 보는 개인적 일탈 행위로 여겨 이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메갈리안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소라넷에서 대량 유통, 소비,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 현상이자 범죄 현상이 몰래 카메라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나아가 메갈리안이 구사하는 미러링 전략은 사물의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며 가까운 것은 확대하되 먼 것은 상을

44) 남성이 군대에 가는 것은 국가에 의해 징집 대상으로 규정되기 때문인데 마치 이러한 징집의 주체를 국가가 아닌 여성으로 오인하는 오류가 범해지고 만다. 이러한 남성 병역의 의무 문제는 징집된 병사들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노동력 착취 구조를 극복하고 상부하달식의 의사소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권위주의적 문화가 타파되어야 하며 나아가 징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의 문제들을 통해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군대의 모든 문제들을 전가하는 여성혐오의 발언들은 징집의 주체인 국가라는 상부 심급에 맞서고 저항할 분노의 힘이 없는 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소수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구도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발언들이 얼마나 무논리적 암호에 가까운가를 드러내 준다. 바로 이러한 여성 혐오 메시지들의 비정합성을 메갈리안이라는 평면거울 효과가 탁월히 지적해내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기생한다고 보는 것은 여성에게 전형적으로 성별 노동 분업화되어있는 가사 노동, 돌봄의 노동-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등을 재생산(reproduction)의 영역으로 가둬둠으로써 여성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노동을 무급화하여 이를 어떠한 가치도 창출,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비가치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사 노동의 무급화는 가사 노동을 노는 일이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일로 여기게 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주부의 위상은 유급 노동자인 남성에 비해 낮으며 경제적 의존성을 가진 이로 한정시키고 만다. 여성의 돌봄의 노동을 통해 일상의 안락함과 쾌적함, 식사 등을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떠한 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여성을 기생적 존재로 규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성을 남성 경제력에 기생하는 이로 보는 여성혐오적 발언이 생산성 개념에 대한 한계적 시야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축소하여 상하 반전을 가져오는 오목 거울 효과로서, 여성이 점유하는 위치에 따라 낙인범주를 세분화하여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해도 김치녀, 소비를 하면 된장녀, 아이를 낳으면 맘충, 운전을 하면 김여사로 지속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도록 하는 것을 날카롭게 집어내며 일상에 가깝게 널려 있는 혐오 언어들의 폭력적 상들을 메갈리안의 오목 거울상에 더욱 크게 맺히도록 하여 이것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⁴⁵⁾ 이러한 오목 거울 효과의 또 다른 예는 “나는 여성을 좋아하므로 여성 혐오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성구매를 일삼는 남성들의 욕망이 개인적 성본능 해소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타자로서의 여성을 구매와 삽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 남성들 간의 사회적 연대⁴⁶⁾가 구성

45) 메갈리안들이 날카로이 지적하는 여성혐오의 범주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법안이 추진 예정이다.

“삼일한(한국 여성은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 맘충, 김치녀, 된장녀... 최근 스마트폰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비하하는 혐오발언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이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 적개심을 숨기지 않는 극단적 성향의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혐오용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 최근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별이나 종교, 특정지역 등을 비하하는 모욕적·위협적 발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혐오발언의 문제점과 해악, 그리고 혐오발언을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할 때 혐오발언을 범죄화하고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험과 정치지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혐오발언 규제에 대한 접근은 간접적이고 최소한의 방식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근(2015), “김치녀, 삼일한...여성혐오발언 형사처벌 추진 논란”, 헤럴드 경제, 2015년 10월 9일 기사.

46) 회사의 회식 문화나 거래처에 대한 로비 방식, 군대 휴가에서 선후임이 친해지는 방식, 또래문화에서 나오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 구매의 기회를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남성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성 구매 행위란 이 사회에서 남성이 되어가는 통과 의례이기도 하며 이를 용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편견들을 내면화해감으로써 남성이라는 젠더로 구성되는 것이다.

되는 한 경로임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 욕망의 상충부 그 아래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여성 혐오의 기저를 상하반전을 통해 통렬히 뒤집어서 보여준다.

1) 실재적 이미지의 솟구침으로서의 전복적 반사경-일베를 얼룩으로 인화하는 감광판

지금까지 거울의 광학적 반사 원리에 입각하여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의 미러링 전략을 분석하였다면 이제 필자는 거울이라는 반사체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심도 깊게 다뤄보고자 한다. 거울 이미지는 매끈한 신체의 봉합 이미지를 통한 자아라는 상상적 동일시의 장이 구축되는 곳이자 타자의 시선에 의해 승인받는 상징계-아버지의 법질서의 종속 지점으로만 과연 한정될 수 있는가.⁴⁷⁾ 다시 말해, 거울 이미지는 아버지의 법질서에 대한 순응 지점으로만 축소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메갈리안이라

47) 라캉은 『세미나 10』에서 거울 앞에서 환호성을 내지르는 아이는 거울과 아이만의 이차적 관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이를 뒤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시선의 상에 자신이 어떻게 맺히는가를 통해 자아를 구축하며 나아가 대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거울단계는 상상적 이미지의 구축임과 동시에 상징계가 보증되고 담보되는 예비단계라 할 수 있다. 이때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법질서를 전달하는 대리자이자 상징적 동일시라는 관찰하는 관점, 그 내려다보는 시선을 동일시하는 것이 상상적 동일시-유사하고 근접한 것을 모방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이미 결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거울 경험의 특징이자 대타자의 공간에서 이상적 자아의 패러다임이라고 여겨지는 이 순간을 참조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묘사한 이 친근한 순간, 아이의 뒤에서 아이를 위해 아이의 기쁨의 표현을 미소로 전달하는 이 대타자에게로, 이 증인, 이 성인에게로 향하는 이 순간, 이것은 말하자면 거울 이미지와 아이를 소통하도록 하는 어떤 것.” “Il suffit de se référer à ce moment que j’ai marqué comme caractéristique de l’expérience du miroir et paradigmatique de la constitution du moi idéal dans l’espace de l’Autre-ce moment familial que je vous ai décrit, vers cet Autre, ce témoin, cet adulte qui est là derrière lui, pour lui communiquer par son sourire, les manifestations de sa jubilation, dison de quelque chose qui le fait communiquer avec l’image spéculaire.” J. Lacan(2004), *Le séminaire 10*, Texte établi par Jacques-Alain miller, Paris: Edition du Seuil, p. 142.

는 반사경은 왜 이리도 전복적 반사체로서 부상하는 것인가. 라캉은 『세미나 10; 불안』에서 모파상의 『오를라』의 한 장면을 언급하며 거울 이미지의 이질성을 언급한다.⁴⁸⁾ 거울 이미지가 상징계에 의해 이미 개편된 종속적 이미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계의 표상성마저 다 찢어버리는 실재적 이미지의 돌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거울 속으로 실재적 이미지가 난입할 때에 그 모든 매끈한 상상적 이미지와 상징적 표상들이 중첩되고 겹쳐진 공간이 공백이라는 실재의 아가리 안으로 다 삼켜져 버릴 수 있다. 모파상의 『오를라』는 이러한 중첩된 국면-상상계의 융합된 신체 이미지와 상징계의 승인적 시선이 겹쳐지지 않는 순간에 해당하며, 그러한 거울 앞에는 어떤 상도 맺히지 않는 공백이 펼쳐지고 만다.⁴⁹⁾ 모파상은 『오를라』에서 거울 속에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가 비치지 않음에 경악하는 주인공을 묘사한다. 즉 거울이 상상적 이미지의 반영 관계에 그치지 않고 있음이 이 구절에서 드러난다. 이처럼 상상적 이자 관계에서 벗어난 실재적 이미지와의 접촉지점이 메갈리안이라는 반사경일 수 있는가에 필자는 주목하고자 오를라의 장면을 인용해 보았다. “나는 거울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텅 비어 있었고 선명했으며 빛으로 가득했다. 내 이미지는 그 안에 없었다.” 왜냐하면 거울 이미지 속 통합된 자신의 신체 이미지도 대타자의 승인이

48) 자크 라캉은 『세미나 10』에서 모파상의 작품 오를라를 언급하며 거울 이미지가 더 이상 상징적 종속지점이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한다. “거울 이미지화는 낯설며, 영국인들이 말하는 바대로 이상하며 비대칭적인 것이다. 모파상의 오를라가 바로 그것이며 이것은 공간 바깥인 것이다. 여기서 공간은 포개짐이 가능한 측면을 말한다.” “La spécularisation y est étrange, odd comme disent les anglais, impaire, hors symétrie. C'est Le Horla de maupassant, le hors-espace, en tant que l'espace est la dimension du superposable.” J. Lacan(2004), *Le séminaire 10*, p. 142. 필자는 메갈리안이 이러한 공간의 포개짐-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인준이 겹쳐지는 중첩의 공간이 아님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49) “Je ne vis pas dans ma glace. Elle était vide, claire, pleine de lumière. mon image n'était pas dedans.” G. Maupassant(1970), *Le maupassant du Horla*, édition présentée et annotée par Pierre Cogny, Paris: Lettres modernes minard, p. 54.

시선의 방식으로 내면화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메갈리안은 어떠한 국면에서 이러한 공백의 난입에 의한 탈봉합의 반사경으로서 작동하는 것인가.

메갈리안을 여자 일베로 축소하고자 하는 시각 또는 메갈리안을 일베의 거울상으로 보는 시각을 라깁의 거울 이론에 대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필자는 아이, 거울에 비친 아이, 상징적 대리자인 어머니의 시선이라는 삼자적 구도 속에서 거울 단계를 재해석한 라깁의 이론에 주목하며, 이러한 거울 단계의 관점이 일베와 메갈리안의 거울 구조에 대입해 볼 수 있는가를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 일베와 메갈리안의 거울 반영관계가 상징적 인준의 장으로 볼 수 없음을 논증하고자 라깁의 수정된 거울 단계 이론을 끌어들이며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 일베는 메갈리안이라는 거울상 앞에서 자아와 이미지 간의 상상적 관계가 보증하는 투명한 시각장을 얻으려면 자신과 메갈리안 간의 동일시를 승인하는 대타자의 기표화하는 시선이 필요하다.⁵⁰⁾ 일베, 메갈리안, 타자의 시선이라는 삼자적 구도 속에서 일베와 메갈리안이 등가적으로 기표화, 의미화되어 상징적 좌표 속 납작하게 한 점으로 평면화될 때에 일베는 메갈리안이라는 거울상 앞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획득하여 상징적 정체성화에 성공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베라는 종속적 주체화 방식은 제3자라는 대타자의 시선을 경유하여 자신이 그 대타자의 눈에 어떻게 맺히는가를 거울을 통해 확인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갈리안은 일베와의 등가적 협착성을 반영하는 상상적 거울상도 아니며 나아가 제3자의 시선에 의한 일베와의 동일성이 인준된 상징적

50) 필자는 일베와 메갈리안, 대타자의 관계를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삼각 구도화해 보고자 한다. “라깁은 다니엘 라가슈의 논문에 대한 논평에서 자신의 거울 단계 이론을 수정하면서 유아의 시선과 거울 이미지 사이에 제3자의 자리를 놓는다. 제3자의 자리란 바로 상징적 타자의 장소를 말한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너머에서 무엇인가가 제3자로서 그 관계를 조율한다는 것이다.” 맹정현(2009), 『리비들로지』, 문학과 지성사, 259쪽.

통합면으로도 축소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은 일베와의 상상적 동일시-유사성과 근접성의 모방 지점으로 그치지 않고 그 너머의 무엇을 쫓구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법질서라는 부권적 의미체계의 결여와 거세의 공간에 편입되기 위한 승인의 시선 자체를 비틀어 버리기에 우리에게 불안을 유발시키고 만다. 전복적 반사경은 상상적 이미지의 봉합표면을 찢어 틈을 벌여놓으며 그 틈에서 출몰하는 그 너머의 무엇을 도래시키는데, 여기서 그 너머의 무엇을 교환 가능하고 측량 가능한 상징적 대상, 즉 남근 질서에 등록된 대상이 아니기에 무대상성이라는 형태—공백, 무, 카오스—로 튀어 오른다. 다시 말해, 이것은 거울이라는 반사경을 대타자의 승인의 시선을 온화한 방식으로 내면화하여 봉합면으로서의 자아를 안전하게 얻고, 나아가 남근질서에 포박된 주체로 길들여져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실재의 사건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하기에 메갈리안이라는 반사경은 폭력적으로 비쳐지며 익숙하거나 안온하며 동질적인 이미지를 담아내지 못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낯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이스북 코리아나 디시인사이드는 메갈리안 페이지를 검열의 대상, 삭제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⁵¹⁾하여 남근

51) “메갈리아 페이지가 사라져버렸다. 6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동안 무려 네 차례나 페이지가 삭제되면서 다시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이 반복됐다. 메갈리안에서부터 시작하여 2, 3을 거쳐 메갈리안4 그러니까 페이지가 네 번이나 다시 만들어졌다. 관리자 계정의 실명 여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facebook의 규정을 살펴보면 ‘소수 그룹을 향한 적개심을 조장하는 단체나 개인은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이 있다.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될 시, 페이스북 측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잣대가 이상했다. 메갈리안보다 훨씬 오래 운영되고 있는 ‘김치녀’관련 페이지들은 삭제된 적이 없었다. 메갈리안 페이지가 삭제되자 김치녀 페이지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김치녀를 검색해보면 ‘김치녀’부터 ‘김치녀 죽이러갈 파티원 모집’ 등, 여성혐오가 조장되는 페이지가 많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이 페이스북의 판단이다. 현재 메갈리안 페이지는 ‘메갈리아4’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하영(2015), “‘메갈리아’가 자꾸만 삭제되는 이유”, CBS노컷뉴스, 2015년 7월 16일 기사.

질서를 일그러뜨리는 실재의 근접 지점으로서의 메갈리안이라는 반사경을 차단/처단하는 것이다.

나아가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은 대타자의 시선을 경유해서 자신을 그 승인의 결과물로 받아들이려하지 않기에 대타자의 시선이 맺힐 만한 봉합면으로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다.⁵²⁾ 왜냐하면 이러한 통합된 신체 이미지로서의 자아는 이미 육체성이라는 과잉적 실재가 잘려나간 신체-기표에 불과하며 이것은 아버지의 법질서의 그물망에 포획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메갈리안은 통합된 단일 정체성의 여성이라는 기표에 포박되어 식별될 수 없는 것이자 상징적 시선에 의해 등가 교환 가능한 기입소로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갈리안이라는 반사경은 상징계에 종속된 상상계가 아닌 실재와 접속한 상상계, 상징계를 휘어지게 하는 실재의 난입인 응시가 드러나는 표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응시는 대타자의 시선과 구분된다. 대타자의 시선이 욕망이라는 결핍의 장, 아버지의 법질서에 주체를 편입시켜 위치점이라는 정박점을 통해 주체를 식별 가능하도록 하는 것, 즉 바코드를 새기는 결박의 시선이라면, 응시는 이러한 정박점이라는 기표적 환원이 불가능해지는 주이상스의 범람으로서 결박을 풀어헤치는 탈봉합적 시야라 할 수 있다. 대타자의 시선이 거울 이미지를 경유해 자신에게 내리쬐히기를 원하는 이가 일베라면, 이에 반해 메갈리안은 이러한 정박적, 수렴적 시선보다 풀어헤침의 발산적, 난입적 시야에 자신을 내던지는 이다.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은 남근질서에 종속된 공간으로서의 매

52) 메갈리안은 일베를 그대로 비추어내는 동질적 투명성의 지점도 아니며 나아가 스스로도 상징적 인준에 의해 봉합되는 신체-기표도 아니다. “거울에서 보여지는 것이 불안해진다면, 그것이 대타자의 승인에 제한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거울 앞에서 평온함과 익숙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거울이라는 상상적 이미지가 상징계에 의해 틀 지워지고 종속되어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메갈리안은 대타자의 인준의 날인이 새겨져 안정감과 소속감, 정체성의 지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정동을 안기는 것이다.

끈한 표면으로 기능하지 않기에 폐허의 풍광으로서의 얼룩(tache)을 펼쳐낸다. 여기서 얼룩은 등가적이고 교환 가능한 한 점이라는 기표로 고정될 수 없는 것으로 발산적이며 난입하는 흔적(trace)이라 할 수 있다. 즉 얼룩은 실재의 소용돌이가 대타자의 승인 구조와 상상적 이미지의 결박 구조를 풀어헤쳐 버리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얼룩은 상징계의 일그러짐을 통해서만 모습을 드러내기”⁵³⁾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얼룩을 인화하는 감광판으로서 메갈리안이 작동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은 대타자의 기표화하는 시선-승인과 인준의 시선 대신, 기표 바깥의 시선인 응시(regard)⁵⁴⁾를 부상시켜 일베라는 종속적 주체의 자리를 무화시켜버린다. 응시는 대타자의 기표적 시선—우리를 명명하고 이름과 자리의 질서에 안착시키는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주이상스라는 대타자의 질서의 불가능성, 그 임계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메갈리안은 이러한 주이상스라는 실재의 국면을 드러내어 일베라는 종속적 주체화 방식이 세상을 분류, 명명하는 상징적 권력의 행위자에서 자신조차 그러한 기표화의 교환점으로 환원되어 존재가 소실되고 마는 것, 결국 하나의 얼룩에 불과함을 드러내어주는 감광판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여기서 견고해 보이는 주체의 자리를 무화시키는 것은 풀려나온 리비도적 박동운동인 충동(pulsion)이 봉합된 시야의 틈을 뜯어내어 그 틈 속으로 응시를 부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시는 세계와 소타자⁵⁵⁾를 상징적 좌표 위 한 점으로 환원하는 주체인 일베의 위상—여성을 낙인화하는 이름 짓기를 통해 상징계라는 아버지의 법질서 속 언제나 겨냥 가능한 한 점으로 축소, 환원하려는 것—에서 일베 스스로가 무화되어

53) 맹정현, 『리비도로지』, 179쪽.

54) “응시는 주이상스의 상실이 아닌 주이상스의 과잉 속에 있다. 이 경우 응시는 욕망의 원인이 아닌 불안의 대상으로 변질된다.” 맹정현, 『리비도로지』, 172쪽.

55) 대타자가 상징적 남근의 위력, 힘의 위상이라는 초월적 심급이라면 소타자는 이러한 대타자의 장에 편입된 주체들을 의미한다.

버리는 지점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⁵⁶⁾

상상적 이미지로도 상징적 인준의 기표적 시선으로도 봉합되지 않는 외상적 틈 속에서 출몰한 불가해한 실재적 이미지를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은 얼룩으로 인화해 내어 우리에게 펼쳐 보인다. 이를 통해 메갈리안이라는 반사경은 우리를 안온하게 정체성화하는 대신 불안이라는 정동 속에 요동치게 하는 것이다. 대타자의 승인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 과잉성으로서의 실재적 이미지는 제대로 된 봉합면에 의해 덧대어 있지 않기에 남근질서라는 의미화 체계에서 폐허와 누더기 더미와 같은 흉물스러운 자체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봉합면에 의해 덧대어진 것은 바로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인준이 겹쳐지고 포개지는 결여의 공간을 말한다.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은 기존의 상징적 좌표 위, 한 점으로 평면화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포개짐의 국면인 상징적 공간을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실재의 맨살—죽음, 공백, 성, 무의미 등을 드러내어버린다. 그러하기에 일베는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 앞에서 기표화와 의미화라는 남근 질서의 포박이 불가능한 지점으로서의 실재의 근접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존재라는 지점이 소실되어가는 불투명한 얼룩으로 인화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징계에 종속되어 기표라는 한 점으로 정박된다는 것은 곧 실존이라는 상징적 정체성을 얻음과 동시에 존재라는 향유의 측면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은 바로 이러한 존재와 향유가 잘려나간 지점, 그 충만의 소실점으로서의 일베

56) “세계를 시니피앙으로 환산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실질성까지도 무화시키는 주체”, 맹정현, 『리비돌로지』, 162쪽; “세계를 무화하는 주체, 대상들을 하나의 점으로 환원시키는 주체, … 이 무화하는 주체가 실은 무화되고 있는 주체에 불과하다.” 맹정현, 『리비돌로지』, 166쪽; 필자는 맹정현의 이러한 설명을 참조하여 일베가 여성을 하나의 이름으로 정박시키는 주체이자 스스로도 이러한 기표의 질서 속 한 점으로 축소, 환원되는 이라고 보며 이러한 남근질서에 종속된 주체화 방식이 무화(無化)의 과정에 다름 아님을 드러내고자 한다. 여기서 무(無)라는 것은 실재라는 상징계의 불가능성이 펼쳐지는 방식이기도 하다.

라는 주체의 궁핍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다시금 그 향유가 육박해오는 방식인 응시를 통해 일베가 명증한 고정점이 아닌 하나의 얼룩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룩은 무엇인가. 얼룩은 기표의 한 점으로 축소 불가능한 발산과 난입의 흔적으로 남근 질서의 균열과 내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체를 상징계라는 아버지의 법질서의 공고한 점이 아니라, 실재라는 범람의 흔적으로 만드는 것이 메갈리안이라는 감광판이 갖는 전복적 효과이며 바로 이것이 남근질서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얼룩의 감광판으로서의 메갈리안은 과연 어떻게 페니스와 팔루스라는 남근을 경화되는 방식이 아닌 흐물거리는 유동적 지점으로서 드러내는 것인가.

2) 메갈리안의 손가락 인증 전략-페니스와 팔루스라는 남근의 유동성과 유약성

일베는 자신의 정체성을 특정한 손가락 모양을 통해 인증함과 동시에 얼굴을 가림으로써 가시화와 비가시화의 경계선에 있다. 여기서 얼굴은 아버지의 법질서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표면이자 상징적 마스크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얼굴 가리기는 얼굴 뜯어내기가 아닌 얼굴이라는 식별표지를 오히려 덧입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⁵⁷⁾ 일베의 얼굴 가리

57) 다음의 논문에서 일베의 정체성과 방식을 논한 바 있다. 여기서 얼굴은 남성/여성, 젊은이/늙은이, 내국인/외국인, 순혈/혼혈 등을 판별하는 상징적 위계성의 표지이자 아버지의 법질서가 각인된 표면이라 할 수 있다. “얼굴 가리기는 여전히 얼굴의 형상성과 본질에 대한 부정이 결코 아니다. 얼굴 가리기는 기존 도덕규범에서 체화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대상과 지점들을 내면화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면, 얼굴 형상의 탈구라는 상징적 마스크 자체를 벗겨내어 버리는 행위는 부끄러움의 대상을 지정하고 그것을 가지 하향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회의와 질문을 공명해 내는 방식이며 이것은 기존 도덕적 규범성 자체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에게 있어,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여전히 얼굴을 덧입히는 방식이지, 얼굴이라는 정주적 분배 방식을 지워내고 해체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윤지영(2015), 「증오의 프리즘으로서의 일간 베스트 현상 읽기—파토

기는 죄책감이라는 파토스에 의해 촉발되는데 이러한 죄책감은 대타자라는 남근질서의 초월적 심급에 대한 고개 조아림이자 대타자의 지식에 압도당한 무력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메갈리안들은 죄책감이라는 파토스가 아닌 불안이라는 파토스를 촉발하는 것으로 대타자의 비일관성과 비전체성, 비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⁸⁾ 그렇다면 메갈리안들은 어떻게 일베의 손가락 인증 방식을 통렬히 비틀며 얼굴형상이라는 상징적 마스크를 탈구하고 있는 것인가.



메갈리안은 옆의 그림과 같은 손가락 모양을 통해 페니스가 어떻게 팔루스라는 상징적 남근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가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메갈리안을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은 페니스의 자그마함이나 왜소함, 협소함 더 나아가 상징적, 문화적, 사회적 권위와 힘의 초월적 심급이라 할 수 있는 팔루스(phallus)의 유약함 역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페니스와 팔루

스의 연계성과 이 둘의 유약성을 폭로하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여태껏 남근 질서 속 여성은 처녀와 비처녀로 판별될 수 있는 대상, 기표화에 의해 변별, 구별될 수 있는 대상으로 환원되어왔다. 그러하

스의 정치학과 윤리학은 가능한가, 『철학논집』 제41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197쪽.

- 58) 필자는 죄책감과 불안이라는 파토스를 지젝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참조하여 전자를 일베의 얼굴 가리기를 통한 정체성화 방식에 대입해 보았고 후자를 메갈리안이 촉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감정의 측면에서 소외와 분리 사이의 차이는 죄책감과 불안 사이의 차이와 등치된다. 주체가 큰 타자 앞에서 죄책감을 경험하는 반면 불안은 타자 자신이 겹여되어 있고 무능하다는 징표다. 요컨대 죄책감은 불안을 은폐한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에서 죄책감은 궁극적으로 기만하는 범주다.” J. Butler., E. Laclau, S. Zizek(2009), 『우연성, 해계모니, 보편성—좌파에 대한 현재적 대화들』, 박대진, 박미선 옮김, 도서출판b, 349쪽.

기에 걷는 모습, 유두와 질의 색깔, 넓어진 질의 크기 등으로 처녀/비처녀를 판별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여성 혐오적 논리까지 양산된 것이다. 즉 처녀성이 박탈되어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교환가치가 떨어진 이를 넓어진 질의 크기로 판별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여성 혐오적 논리는 처녀막 재생 수술과 이쁜이 수술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 힘을 발휘해 오고 있다. 여성의 질을 외과적 재건과 교정의 대상으로 보며 남성적 욕망의 그릇으로만 한정하려는 이러한 논리에 맞서는 메갈리안들은 ‘실자지’라는 용어를 통해 페니스의 왜소함과 별 볼일 없음을 통렬히 폭로하며 페니스와 팔루스의 긴밀한 연관성의 구조를 드러낸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다시 말해, 남근 질서에서 초월적 기표로 기능하는 팔루스는 상징적 좌표 위 한 점으로 축소, 환원되지 않는 특권적 위상으로 고양되어왔지만 이제 메갈리안들은 이러한 팔루스의 특권적 위상을 박탈하며 이것의 결여와 비전체성, 비충체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팔루스와 페니스의 밀접한 연동성을 통해 남근 질서의 비토대성, 결여로 구멍나있는 비전체성을 적극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이 메갈리안의 손모양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근적 의미화 체계에서 팔루스는 이것이기도 저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것으로도 저것으로도 한정될 수 없는 것으로 모든 기의의 장을 아우르며 휩쓸고 다니되 결코 한 기의로 정박하지 않음으로써 페니스와의 깊은 관계성을 항상 교묘히 피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⁵⁹⁾

59) 페미니스트 철학자—대표적으로 주디스 버틀러가 페니스와 팔루스의 연관성을 지적할 때마다 지적은 이 둘의 연관성을 희석시키며 이 남근은 그 남근이 아니라는 수사학적 방식으로 페니스와 팔루스의 밀접성에 거리를 취해왔다. “상징계가 규범적 친족관계와 분리될 수 있다는 희석된 개념을 받아들이려 할 수는 있지만 왜 거기에는 아버지의 자리와 남근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가. (...) 이 상징계에 있는 위치들이 왜 항상 이성애적 양육이라는 이상화된 개념 주위를 선회하는지 알기 어려운 일이다. 나의 친구 지젝과 라클라우가 남근이라는 용어는 남근이성 중심주의와 정의상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새로운 용법을 성취했음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서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J. Butler., E. Laclau, S. Žižek, 『우연성, 해게모니, 보편성—좌파에 대한 현재적 대화들』, 215~216쪽.

그러나 라캉은 『세미나 23』에서 “팔루스는 말의 기능과 더불어 기생충이라 불리우는 작은 꼬리—페니스와의 연결”이라고 정의내리며 나아가 “페니스의 기술은 팔루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증인이라는 점으로 구성된다.”⁶⁰⁾고 분석함으로써 페니스와 팔루스의 내밀한 관계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음성이라는 로고스(logos)의 직접적, 무매개적 발현과 생물학적, 해부학적 생식기관으로서의 페니스와의 결합체가 바로 팔루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parole)이란 로고스, 즉 이성적 목소리의 직접적 현존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음성은 바로 팔루스의 목소리임을 뜻한다. 또한 페니스는 팔루스의 보증인으로서 팔루스의 현존을 페니

필자는 이러한 페니스와 팔루스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에 의문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의문점이 라캉의 『세미나 23』에서 풀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상징계 자체가 이미 아버지의 법질서로 정의되고 있고 페니스의 소유 여부로 남아와 여아의 나르시시즘의 발달 양상이 상이하게 구성됨으로써 승화와 문화 활동에 적합한 말하는 주체로서의 특권이 남성에게 부여되어 왔다.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은 주체를 실재의 근접으로부터 방어하고자 주체를 정주적 방식으로 묶어내는 남성적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페니스와 팔루스의 상관성은 제대로 논증되지 않아왔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 둘의 상관성을 통해 대타자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라캉의 언명을 세밀히 논증하고자 한다.

- 60) 불어의 속어에서 꼬리는 남성의 생식기를 지칭한다. 여기서 작은 꼬리는 페니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이스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남자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작은 꼬리(페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단어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는 약간 축 늘어진 페니스를 가졌기에 그의 기술은 팔루스적 외양을 보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이러한 것입니다.” “Quand il (Joice) se trouve qu'on se croit male parce qu'on a un petit bout de queue. Naturellement, pardonnez—moi ce mot, il en faudrait plus. Mais comme il avait la queue un peu lache, si je puis dire, c'est son art qui a suppléé à sa tenue phallique. Et c'est toujours ainsi.” 필자는 『세미나 23』의 15페이지에 나오는 이 문장을 통해 남성성을 페니스의 여부로 결정하고 페니스의 결합을 팔루스적 외양으로 보충, 보완하는 조이스의 양태가 남성성에 대한 정의 방식으로 볼 수 있음을 라캉의 논의를 통해 도출하게 된다. 그리고 본문의 인용구는 다음의 불어 문장을 해석한 것이다. “Le phallus, c'est la conjonction de ce que j'ai appelé ce parasite, qui est le petit bout de queue, avec la fonction de parole. Et c'est en quoi son art est le vrai répondant de son phallus.” J. Lacan(2005), *Le séminaire livre XXIII; le sinthome*, Paris; Editions du Seuil, p. 15.

스가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팔루스가 이미 탈중심화되어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냐하면 팔루스가 페니스를 산출하는 원인자이거나 승인의 날인을 발행하는 상부 심급이 아니라 작은 꼬리인 페니스의 유약함에 기대여 있는 효과물이기 때문이다. 라깡에 의해 기생층으로 묘사되는 페니스라는 국지적 기관, 그것에 의존해 있는 팔루스는 이미 공백에 의해 관통당하고 있음이 드러나며 나아가 실체적 완전성의 극점으로서의 대타자는 존재하지 않음, 즉 “대타자는 없다.”라는 선언이 『에크리』에 이어 『세미나 23』에서도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이때에 대타자(*grand Autre*)는 완전하고 완결적이며 총체적인 것, 영구불변의 초월적 심급을 말하는데, 바로 이러한 전체로서의 질서, 완전무결한 토대로서의 대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대타자의 중심축이라고 상정된 팔루스 역시도 비전체(*pas—tout*)라는 실재의 과잉성에 의해 구멍 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깡이 『세미나 23』에서 논증해내는 팔루스라는 대타자는 흐름 거리고 순식간에 구부러지기 쉬운 페니스와의 밀접성 속에서 그 견고성과 중심성이 파기되는 유동성의 장으로 재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메갈리안의 손가락 모양은 페니스의 기관성을 경화와 불변성의 장이 아닌 축 늘어졌다가 순간 뻗뻗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지는 유동성의 살(*chair*)로 다시 재조망하며 팔루스와 페니스라는 남근을 경화의 논리의 궁극적 실패 지점으로 드러낸다고 필자는 분석한다. 다시 말해, 필자는 페니스를 딱딱한 부동의 경화 상태, 견고한 고체의 논리의 지점이 아니라 부풀어 오르고 축소되고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며 말랑말랑해지고 뻗뻗해지는 변이의 양태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페니스를 기관(*organe*)이라는 경화된 기능주의가 기표화되는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를 육체성이라는 범람과 과잉의 지점으로 다시 읽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생층으로서의 작은 꼬리, 즉 말단부와 부차적인 것으로서의 페니스에 의해 지속되는 효과로서의 팔루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 팔루스를 지지하는 보증소인 페니스 역시도 기생충으로 표현될 때에 페니스 또한 의존적인 것이며 이러한 의존적인 것에 대한 팔루스의 의존성은 이중적으로 중첩화된 의존성이기에 우리는 이를 통해 팔루스가 뿌리가 아닌 흔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페니스 뿐만 아니라, 팔루스 역시 몸이라는 유동성과 변이의 지점으로서 실재와의 대척점이 아닌 실재의 잠재태라고 필자는 해석하게 된다. 지젝의 관점에서는 “실재가 상징계에 내속적이라는 주장이 대타자는 존재하지 않는 다라는 주장과 엄밀히 같은 것”⁽⁶¹⁾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필자에게 있어 실재는 상징계의 내부가 아니라 오히려 상징계가 실재의 잠재태이자 실재의 내부적 응결점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상징계는 실재라는 유동성과 범람의 대우주 속 한시적 응결점이지만 그 응결점은 이미 공백에 의해 관통되어있어 언제든지 실재로 다시 흘러들어버릴 수 있는 것, 즉 실재의 편린들이라는 것이다.⁽⁶²⁾ 왜냐하면 기존의 상징계 중심으로 실재를 배치하는 방

61) J. Butler, E. Laclau, S. Zizek,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좌파에 대한 현재적 대화들』, 418쪽.

62) 실재를 중심으로 상징계를 재배치한 논의는 2013년 논문에서 이미 논증된바 있다. “즉 상징계 중심의 기존 위상학적 배치방식에서 벗어나, 실재라는 비규정성의 우주 속 작은 응결들—그러나 내부 균열과 비규정성을 내포하고 있는—로서 주체와 타자를 인식하려 하는 것이다. 실재가 상징계의 바깥이 아니라, 상징계가 실재의 내부 응결점으로 보는 이러한 위상학적 지형도의 전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상징계 중심으로 주체화 과정을 읽어 내려왔던 기존 주류 독법방식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육망의 전복』에서 페터 비트머 역시 실재를 상징계의 바깥으로 위치 짓고 있다. 이러한 상징계의 외부로서의 실재 개념이나, 나아가 지젝이 제시하는 상징계의 내부 균열로서의 실재 역시 상징계 중심의 지형학적 배치에 불과한 것이라 본 연구자는 보는 바이다. 여전히 언어 질서인 상징계를 축으로 실재가 그것의 내부 혹은 외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실재의 새로운 지형학적 위상학은 실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실재의 잠재태(le mode virtuel)로서 상징계에 접근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는 실재의 비규정성이 이미 상징계를 관통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실재의 회오리같은 역동성의 힘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즉 실재가 상징계에 구멍을 낸다는 것은 실재가 상징계의 내부 균열이 아닌 상징계가 실재의 편린들이며 잠재적 응결체로서 언제든지 주이상스에 의해 범람하고 마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분석하는 바이다. 실재가 상징계의

식에서 벗어나 실재를 중심으로 상징계를 재배치하는 새로운 지형학을 그려볼 때에야 비로소 페니스와 팔루스라는 남근의 유약성과 비밀관성이 보다 더 잘 부상하기 때문이다. 페니스와 팔루스라는 남근성은 아토포스(atopos)라는 위상학적 역설-위치지울 수 없는 자리를 구성하는 몸의 유동성과 변이성이 한시적으로 정주화, 영토화되었다가 이내 그 내적 구멍들에 의해 내파되어 실재라는 과잉성과 맞닿아 버릴 수 있는 것으로 물렁거림과 딱딱해짐이 수시로 교차하는 몸이라는 진동의 장에 열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타자의 질서, 그것의 비존재성, 비토대성, 비충체성은 팔루스와 페니스의 연관성에 의해 논증되며 이를 통해 팔루스가 페니스와 같이 일렁이고 넘치는 것으로 실재의 역동성과 조우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페니스와 팔루스의 유동성과 유약성을 드러내는 메갈리안의 손가락 모양이 얼굴이라는 종속적 주체화와 남근적 의미화, 정상적 리비도화라는 세 가지 경화 방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이 손가락 모양은 얼굴 형상이라는 각화된 표면에 공백을 도입하여 이러한 안면성을 뜯어내는 방식이라고 해석하게 된다.

4. 남성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혐오의 논리에서 여성은 구멍으로 환원되거나 삼입의 대상이자 탈취의 장소로 축소되기 일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혐오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해체적으로 분석하고자, 메두사의 머리와 바기나 덴타타(vagina dentata)⁶³⁾라는 신화에서 드러나는 여성 성기에 대한 남성의 거

위협이라기보다 상징계가 실재의 정주 방식, 잠정적 영토화 방식(territorialisation)이며 이는 언제고 탈영토화(déterritorialisation)의 가능성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윤지영(2013), 「주체의 해석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이해는 진단인가, 낙인적 범주화인가」, 『시대와 철학』 제24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78쪽.

63) 이빨달린 질이라는 의미의 바기나 덴타타는 북미 인디언과 마오이족 신화의 하

세 공포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메두사의 머리」라는 아주 짧은 논문에서 메두사에 대한 공포를 거세의 공포로 등치하며 나아가 메두사의 머리칼을 거세당한 여성 성기로 묘사한다.⁶⁴⁾ 즉 남자 아이는 메두사의 뱀 머리 앞에서 거세의 법이 실현되는 방식을 확인하고 공포를 느낌과 동시에 자신에게는 아직도 안전한 페니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여성의 생식기를 거세된 것, 거세의 법의 현실태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이 이러한 거세된 자의 위상과는 대조되는 발기하는 페니스가 있다는 것을 통해 남아의 나르시시즘의 유지와 보존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르시시즘의 중심축으로

나이다.

- 64) 필자는 프로이트의 「메두사의 머리」라는 짧은 논문을 통해 여성, 즉 여성의 성기에 대한 남성의 공포가 어떻게 기인하는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메두사에 대한 공포는 곧 본 것과 연관된 거세의 공포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분석들을 통해 이 상황을 알고 있다; 이 상황은 위협을 받지 않는 남아가 여성 생식기를 보았을 때를 말한다. 아마도 그것은 털로 뒤덮인 여자 어른의 생식기이며 엄마의 그것일 것이다. (...) 메두사의 머리를 본다는 것은 공포로 경직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보는 자를 돌로 화석화시킨다. 왜냐하면 경화된다는 것은 곧 발기 상태임을 의미하며 이것은 보는 자에게 위안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페니스가 존재하며 그것이 딱딱해질 때에 자신이 페니스를 가지고 있음에 안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La terreur de la Méduse est donc la terreur de la castration, liée à une chose vue. Nous connaissons cette situation par de nombreuses analyses ; elle se présente lorsque le petit garçon, qui jusque-là ne voulait pas croire à la menace, aperçoit un sexe féminin. Probablement un sexe de femme adulte entouré de poils qui est celui de la mère. (...) La vue de la tête de Méduse pétrifie de terreur, elle change le spectateur en pierre. Car être pétrifié signifie être en érection, ce qui, dans la situation primitive, apporte au spectateur une consolation. Il a encore un pénis, il s'en assure en devenant lui-même rigide.”, S. Freud(1922), “La tête de la Méduse”, 1922년에 출간된 이 논문은 그 다음해인 1923년의 남근기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프로이트는 거세 콤플렉스에 의해 조직화된 단계이자 어린이의 생식기적 섹슈얼리티의 단계로서 남근기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Freud développe la théorie du stade phallique génital en tant que stade de la sexualité génitale infantile, stade organisé par le complexe de castration.” J. Filloux(2002), “La peur du féminin de La tête de Méduse(1922) à La féminité(1932)”, *Topique* 1/2002 (no 78) , 103~117쪽.

서의 페니스, 그것의 결여자인 여성은 존재함량이 미달되거나 결핍된 자로 규정됨으로써 여성혐오의 원리가 구성된다.⁶⁵⁾ 여성을 결핍된 자, 열등한 자로 보는 여성혐오원리에서는 여성 성기가 남성 성기와 다르다는 것, 즉 차이의 발산점으로 보지 않고 이 차이를 동일성의 원리에서 열등한 것이자 모자란 것으로 규정하여 남근적 인식틀 속에 구겨 넣어버리고자 한다.

1) 메두사와 바기나 덴타타 신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메두사의 저주—메두사의 머리를 보면 돌로 변하는 것—를 축복으로 읽어내는 프로이트의 관점이다. 메두사와 같은 거세의 상태가 되느니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죽어가는 것을 오히려 선호하는 이 관점은, 화석화의 상태를 발기된 페니스의 경화된 상태로 접근하고 있다. 프로이트에게 있어, 발기된 페니스는 곧 성차(difference sexuelle)의 날인—우뚝 솟은 이와 구멍 난 이, 삽입하는 자와 삽입당하는 자—이 새겨지는 순간이자 페니스를 향존의 대상으로 보존해야 할 만한 것으로 고양시킨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페니스를 경화된 것, 딱딱하고 견고한 것, 향존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기에 페니스를 가변적 살의 현상학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가변적 살의 현상학으로서의 술렁임과 엉김이라는 몸의 유동성이 펼쳐지는 장이 페니스⁶⁶⁾이며 페니스 역시 실재

65) 이러한 예로 김여사라는 낙인범주가 있는데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보다 방향 감각이나 공간 감각이 떨어지고 판단 능력이나 순간대체능력이 미비한 이, 즉 결핍자로 규정됨으로써 도로망이라는 남자들의 세계의 순조로운 순환에 폐를 끼치는 이로 폄하된다. 여성은 솔뚜껑 운전이나 하라는 식의 비하 발언을 통해 사회적 도로망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정에 유폐되어야 한다는 혐오발언이 양산되는 것이다.

66) 필자는 다음 논문에서 페니스와 팔루스를 살의 현상학으로 조망해야함을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팔루스-페니스를 경화된 상태의 영속성이 아닌, 유화된 상태로서의 술렁임(unsettle)과 엉김(congeal)으로서의 응결점 사이를 넘나드는 입

가 가진 공백, 구멍일 수 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화석처럼 굳어진 것이 한 줌 가루처럼 부서지고 으깨어지기가 더 쉽다는 것을 왜 간과하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경화된 페니스를 으깨어버릴 메두사는 과연 가능한가.

프로이트는 메두사 신화에서 메두사의 뱀 머리칼의 벌어진 입과 멧돼지와 같은 송곳니의 날카로움을 탈각시키며 메두사가 바기나 덴타타라는 이빨달린 질의 또 다른 버전일 수 있음을 은폐한다.⁶⁷⁾ 여기서 입과 여성 성기의 연관성을 들여다보자면, 여성의 질은 이빨달린 입이자 치명적으로 집어삼키고 다시 뱉어내는 식도로서 그려지는데 바로 이러한 이미지가 바기나 덴타타에서 차용되고 있다. 바기나 덴타타에서의 여성의 질은 입을 벌리고 있는 심연과도 같이 작동하는데 이러한 입은 남성적인 입, 즉 로고스라는 이성적 말과 담화를 뿜어내는 입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왜냐하면 남성적 입은 시초와 원인으로서의 이성, 원인자로서의 로고스를 구축하는 질서의 시발점이라면 여성의 질-입은 이 질서의 세계가 얼마나 유약한 것에 불과한가를 순식간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

자이자 과동으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필자는 보기 때문이다. 즉 술렁임과 엉킴이라는 가변적 살의 현상학으로 접근할 때 남근의 영속성과 불변성의 신화는 효과적으로 해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발기의 우뚝 솟음이란 경화 상태는 흐물거리고 말랑대는 상태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비로소 존재적 우위성을 간취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지영(2014),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사유 역학 논고-솔리더리티(solidarity)에서 플루이더리티(fluidarity)로-』, 『서강인문논총』 제40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41~242쪽.

- 67) 바바라 크리드는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영화,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중, 메두사의 머리; 바기나 덴타타와 프로이트 이론이라는 챕터에서 메두사가 거세된 성기가 아닌 거세하는 성기임을 날카로이 지적한다. “프로이트는 메두사 신화의 중요한 국면을 무시했다. 신화학자들은 꿈틀거리는 머리와 거대한 입, 축 늘어진 혀, 그리고 멧돼지의 어금니를 지닌 메두사를 바기나 덴타타의 특히 흉측한 버전으로 본다. 프로이트의 해석은 여성성기의 공포스러운 특징, 즉 거세 위협을 숨긴다. 그녀의 남성 희생자들은 공포로 그 자리에 굳어버린 것이 분명하다.” B. Creed(2006),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영화,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손희정 옮김, 여이연, 213쪽.

다. 즉 무의미와 비의미의 소용돌이로서 삶의 공허성을 진동시키는 것이 질-입이며 이러한 여성 성기와 입의 연관성은 아버지의 법질서마저 파기해 버리는 혁명적 전복성을 지닌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질-입은 미로와 같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며 개념적 규정성에 의해 다 재단되지 않고 다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코스모스(cosmos)라는 질서의 세계에 앞서 가장 먼저 온 것,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서의 카오스(chaos)의 선재성⁶⁸⁾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에 카오스는 경계 없음, 한계지어지지 않음이라는 혼돈적 심연으로서 라캉의 실재의 국면과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재의 근접을 도래시키는 심연으로서의 여성 성기에 대한 공포는 여성혐오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한다.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여성혐오가 여성을 결핍자로 보는 편하의 원리라면 두 번째 여성혐오는 여성을 알 수 없는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공포심은 혐오와 증오의 파토스로 격화되어 유통된다.⁶⁹⁾

여기서 바기나 덴타타라는 이빨달린 질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 사고에 대한 어떠한 전복을 수행하는가. 이것은 섹스가 권력범주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여성의 질은 수동적 그릇에 불과한 것인가, 남성의 쾌락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재생산을 위한 몸-그릇에 불과한가라는

68) 이러한 카오스의 선재성은 그리스 신화의 태초의 탄생 신화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맨 처음에 존재한 것은 구멍이었다. 이것을 그리스인들은 카오스라고 불렀다. 그럼 그 구멍을 무엇일까? 빈 공간이다. 아무 것도 구분되지 않는 캄캄한 공간이다. 끝없이 추락하는 공간이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끝도 없고 바닥도 없는 혼돈의 공간이다. 이 구멍은 커다랗게 벌린 거대한 아가리처럼 모든 것을 어둠 속으로 삼켜버린다.” J. P. Bernand(2004), 『베르낭의 그리스 신화』, 문신원 옮김, 도서출판 성우, 25쪽.

69) 남자 잡아먹는 여자, 서방 잡아먹는 여자라는 낙인범주가 두 번째 여성혐오에 해당한다. 홀아비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애처롭고도 안타까운 사람으로 여기지만 과부에 대해서는 서방을 잡아먹는 여자로 낙인찍는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남편에게 귀속된 이가 아닌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으로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러한 여성은 사회적으로 배격되거나 술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질문인 것이다. 왜냐하면 섹스라는 성행위가 여태껏 남성 중심의 삽입 행위의 전부로 여겨져 왔으며, 섹스가 남성의 발기를 위한 전회에서 삽입과 사정으로만 전개, 절정, 결말지어져오는 서사 구조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⁷⁰⁾ 이러한 삽입 섹스의 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바기나 덴타타라는 이빨달린 질이 제시하는 흡입 섹스라는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면 삽입 섹스(penetration)라는 용어의 남근 중심성에 대항하여 흡입 섹스(absorption)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페미니스트적 전략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는가. 여성의 처녀성에 대한 도덕적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것도 여성은 삽입의 대상, 온전성의 타격을 입는 자이자 탈취당한 자로 규정하고 이에 반해 삽입의 주체로서의 남성은 전리품처럼 무언가를 획득하고 정복한 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삽입 섹스란 용어가 모든 성적 실천을 규정짓는 것이라고 여길 때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중적 성규범이 발생하는 것이다. 왜 여성은 자신의 성적 실천의 문제 앞에서 이를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변해야 하는 dissimulate (~인데 ~아닌 척하기)의 전략을 통해 처녀성의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며, 이에 반해 왜 남성은 자신의 성적 실천을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떠벌리며 simulate(~아닌 데 ~인 척하기)의 전략성을 펼치며 자신의 능동적, 공격적 성본능을 건강한 남성성의 표징으로서 전시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삽입이라는 용어에서 삽입하는 자와 삽입당하는 자 간의 능동성과 수동성, 정복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위계가 우리의 성적 실천의 현장은 물론 인식론적 가치 판단의

70) 삽입 섹스 중심의 성적 실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문제제기가 구축되고 있다. “여기서 섹스의 서사 구조역시 왜 남성의 사정을 위한 발단과 전개, 절정 국면이어야 하며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인가 되물어야 할 것이다. 이성애의 섹스 서사구조는 지극히 남성 리비도의 단선적 정의 방식—삽입과 사정 여부—에서 가 두어져 버리고 만다. 성기 삽입을 중심에 놓는, 통념적인 ‘섹스’는 그 자체로 이미 남근 중심적, 이성애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섹스하기’ 위해선 섹스를 다시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행위와 정의가 동시에 가야 하는 것인지 왜 되물지 아니하는가.” 윤지영(2013), 『트랜스 리비도 경제학』, 『철학 연구』 제126집, 대한철학회, 198쪽.

장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미니스트들이 흡입 섹스라는 용어를 통한 인식론적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즉 삽입이 남성 중심적 관점이었다면 흡입은 여성 중심적 용어이다. 흡입에서 부분적 기관으로서의 페니스는 여성의 몸으로 흡입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기나 덴타타라는 고대 신화에서의 남근 거세 공포를 반영하기도 한다. 더 이상 여성의 처녀막을 뚫고 찢는 공격적 포지션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오히려 덮이고 물리게 됨으로써 여성의 능동적 포지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이분법적 도식의 전복은 여성과 남성 간의 성행위의 소비에서 남성이 여성을 “따먹었다.” 등의 비하 발언이 난무되는 것이 결국은 삽입 섹스에 국한된 통념에 불과함을 드러낸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남근 선망 구조 안에서 남근 결핍자로 설명되어져 온 여성은 낮은 자기애와 승화능력의 부족으로 문명과 문화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이로 설명된다. 그러나 바기나 덴타타라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화에 의해 이러한 남근 선망 구조가 어떻게 전복될 수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 남성성에 내재한 거세에 대한 공포가 거세의 실현태로서의 여성 클리토리스, 즉 잘린 페니스로서의 클리토리스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빨달린 질에 의한 페니스의 거세와 제거에 의해 유발된다고 봄으로써 여성의 질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남근을 담아내는 몸-그릇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근 선망에 사로잡힌 것으로 묘사되는 여성이 성행위 속에서의 페니스에 의해서나 아들의 출산에 의해 이러한 남근 선망 욕구를 실현한다고 보는 프로이트의 이론과는 달리, 이빨달린 질의 신화에서 남근은 거세의 대상이지만 거세 이후 남근은 질 안에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어져 버림으로써 더 이상 선망의 대상조차 아니게 된다. 이때 잘려지는 남근은 남근의 부재로서의 여성에 의해 흡수되거나 대리 이양되는 존재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처럼 버려지고 내동댕이쳐지는 비가치의 영역이 된다는 점에 필자는 주목하게 된다. 즉 바기나 덴타타에서 여성은 남근의 부재자가 아니라 남근의

비생산성, 비가치성을 드러내는 임계점으로 작동하고 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작용을 메갈리안들이 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로이트 이론에서 남근 거세자, 즉 남근 질서의 구현자는 아버지로서 나타나지만 바기나 텐타타에서는 여성이 그 거세의 주체로서 형상화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성이 남근 거세의 법이 실현된 양태, 남근 거세의 대상자가 아니라 남근 거세의 실행자이자 구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남근 거세의 목적은 남근 선망 속에서 남근을 자기화하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남근이 전유한 가치치 자체를 박탈하는 자, 즉 남근 의미 체계의 해체자가 되는 것이 바기나 텐타타가 가진 전복성이라고 필자는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흡입 섹스적 관점은 남근의 가치를 중심으로 개편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차(sexual difference) 자체를 재조망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물론 프로이트는 남근적 어머니(phallic mother)의 이미지에서 이러한 남근 거세의 공포를 유발하는 여성성의 이미지를 구체화한 적은 있으나 이것 역시 남근기에 있는 남아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여된 남근성의 변형물로서 접근되고 마는 한계를 지닌다. 나아가 이빨 달린 질에서 질은 남성의 페니스와 정액의 보관소이자 재생산의 도구로 한정되지 않고 남근 질서의 의미화 방식을 뒤엎는 지점이 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클리토리스에서 질로 주요 성감대가 이동하는 것을 생식기 단계로의 전환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질 중심성을 정상적 이성애자 여성으로서 구성되는 주요 요건으로 보았다. 바로 이러한 질 중심적 쾌락이 여성을 모성과 창녀로 이분화하는 계기로 작동하는 것이다. 아이를 재생산하기 위해 질에서 유발되는 부차적 쾌락 혹은 이러한 쾌락의 누락, 배제를 내면화하는 신경증적 여성이 모성이라면 이에 반해 재생산보다 질에 의한 쾌락 중심성을 강조하며 쾌락의 폐제를 거부하는 여성을 창녀라고 이분화하는 것이 가부장적 담론의 협소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 중심적 쾌락은 처녀성에 대한 신성화와 공포의 양가 지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바기나 텐타타는 질 중심적 쾌락을 남근 질서로의 예측 효과로

보지 않고 질을 남근의 거부, 조롱, 비틀어버림의 지점 자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모성의 실현 도구로서의 기능성, 목적성 자체를 탈각시켜버린다.

다시 말해 바기나 덴타타를 통한 흡입 섹스에 대한 고찰은 삽입(penetration)이라는 특정 성적 실천 양태에 대한 개념적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나아가 바기나 덴타타 신화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남근 선망 구조와 남근 결핍으로서의 여성, 성차의 구조화 방식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혁명적 분석 지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빨달린 질로서의 거세하는 자는 누구인가. 지나치게 독립적인 여성이나 지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여성, 스스로가 소비의 주체가 되는 여성,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여성들은 남근을 약화시키는 여성으로 규정된다. 예를 든다면 자신보다 키 큰 여성에 대한 혐오나 똑똑한 여자는 남자들이 싫어한다는 편견 등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여성은 모두 남성에게 기생하는 이들로 단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 나아가 창녀에 대한 혐오 역시 이러한 여성혐오 범주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적 특질이라 할 수 없는 적극적 능동적 성욕을 가진 여성,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이를 실천하는 여성은 공포를 유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창녀는 특정 직업군이 아니라, 남성적 관점에서 통제와 규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성을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포를 일으키는 여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공포라는 위압적 국면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즉 공포의 감정을 혐오로 축소함으로써 그 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창녀에 대한 혐오, 지나치게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여성, 예측이 불가능한 여성에 대한 혐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남근적 의미체계를 비틀어서 그 임계점을 적극적으로 가시화해버리는 메갈리안들은 바기나 덴타타라는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와의 양태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다양한 변역어들을 통해 여성혐오 언어들의 빈곤성과 무의미성을 뒤집어 보이고 당연히 여겨지던 통념과 상식에 젖은 일상들을 낯설게 해버리는 효과들을

도입하며 균열들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메갈리안은 이빨달린 질의 신적 폭력성—법 파괴적, 혁명적 폭력—의 힘으로 경화되어있는 남근을 으깨어 버린다. 나아가 남근이 이미 구멍 지어진 것임을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페니스와 팔루스의 삶과 실재의 맨살이 닿는 접면을 부상시켜 버림으로써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악은 기존의 의미화 체계에서 통용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이질성이기 때문이며 기존의 여성이라는 기표와 기의가 묶이는 방식에 난입하여 이를 풀어헤쳐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 혐오와 분노의 차이-남성혐오는 없다.

특정 기표가 특정 기의에 한정, 제한되도록 이 둘을 누비는 남근적 봉합점들을 하나하나 물어뜯어 해체해 버리는 메갈리안들,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는 급진적 물음들을 길어 올리는 메갈리안들, 그들은 혐오/증오라는 파토스에 의해 추동되는 자가 아니라 분노(indignation)라는 파토스에 의해 촉발된 이들이다. 혐오/증오의 파토스는 소수자라는 하위 계급자들에게 향하는 것⁷¹⁾으로 낙인적 이름들의 증식

71) 혐오/증오와 분노의 파토스에 대한 구분은 다음 논문에서 개진한 바 있다. 필자는 남성혐오가 왜 불가능한 지를 이러한 두 가지 파토스의 개념적 구분을 위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증오하는 자는 불합리와 부조리의 시공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 현실의 판을 뒤집어 문제제기를 하기보다 사회적 정서와 상식, 통념이 지정하는 굴종적 견여법의 태도를 견지하다가 자신이 우위적 위상을 가지게 될 때 그러한 증오의 감정을 하위 계급성에 위치한 이들에게 발산한다. 즉 자신이 겪은 부조리적 사태의 원인 제공자에게 분노하기보다 스스로가 부조리의 재생산자가 됨으로써 부조리적 상황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고통과 견뎌를 되돌림하며 이것을 사회적 여물의 방식이자 사회화, 정상화되는 방식이라 주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노하는 자는 불합리한 상황 앞에서 질문하는 자이며 상식적 좋음으로 통치되는 예외법결과 효, 사회성, 효율성 등의 프레임을 깨뜨리는 이인 것이다. 분노하는 이는 불합리의 원인 제공자에게 다시 질문을 건네며 이제껏 전제되어 왔던 침묵의 카르텔을 부수는 자이다. 그러나 증오는 불합리의 서사를 구성하도록 한 발신인에게 상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전혀 다른 이에게로 그 부조리

을 통해 여성을 세분화된 범주 속으로 분류, 식별하려 한다. 왜냐하면 혐오/증오는 현실의 틈을 벌려놓는 요소들을 애써 봉합하고 메꾸기 위한 신화적 폭력성—법 제정적, 법 보존적 폭력—의 양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촌충해 보이는 현실에 구멍을 내는 메갈리안들을 혐오의 실밥으로 남근적 현실판 위에 기워내고 고정시켜보고자 여러 기표들을 덕지덕지 덧입혀보는 것이 혐오/증오의 언어인 것이다. 이러한 언어는 기존 질서에서 결여의 자리를 증식시켜 이 자리에 소수자들을 위치시키려 한다. 이러한 결여의 자리는 다름 아닌 남근 질서의 기표화가 공고화되는 방식이자 거세의 법이 실행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질서판 위 현실을 진동시키는 이들을 문제적이라 힐난하며 이들을 낙인화하는 열등-가치화와 이런 이들이 이상화해야할 우등-가치화의 범주들을 대척점으로 양산해낸다. 즉 이미 들어본 가치들의 꾸러미를 펼쳐놓고 도덕과 상식이라는 규준틀 속에서 선과 좋음이라는 가치를 스스로가 모두 구현해내고 있다고 자처하며 ‘좋은 게 좋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좋음인지를 질문조차 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 기존의 에토스라는 관습과 습속들의 재생산만을 강요하며 그것이 중립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가치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지한다. 다시 말해, 혐오/증오의 파토스는 대타자에 의해 부여된 각각의 본질과 한계라는 주어진 자리에 정주하길 명령하며 자리 이탈자들을 단호히 처단하기 위한 치안(police)의 장치인 것이다. 혐오/증오의 파토스는 끊임없이 질서의 회복과 제자리로의 복귀, 평화의 유지, 정의의 복원이라는 기존 가치의 거대한 모토를 내세우며 이러한 온전성과 본래성, 기원성을 실체화하려 하며 이에 반하는 것을 악의 축이나 반동분자, 난동꾼, 불평분자, 부적응자, 미친 자로 규정하여 기존의 있어왔던 방식에 대한 개입이나 교란들을 예

의 상처를 수신하게 하는 어긋남의 우편제도 양식을 통해 가동된다고 필자는 분석해 본다.” 윤지영, 「증오의 프리즘으로서의 일간 베스트 현상일기-파토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은 가능한가」, 172~173쪽.

방하고 감시, 처벌하고자 한다. 그러나 분노는 오염되지 않은 완결적 시원이나 뿌리 등을 상정하지 않으며 교란과 개입을 통해 기존 질서의 견고성을 뒤흔들어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메갈리안을 일베의 복사판, 여자 일베로 규정하는 이들은 “여성들은 그래서 안된다.”는 도덕적 판단을 통해 여성의 정숙함과 나긋나긋함, 수줍음과 배려심 등이라는 기존의 신체-기표적 에토스를 또 다시 강령화하여 주지하려한다. 여기서 신체-기표적 에토스란 남근적 의미화와 가치화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예측 가능하고 미리 규정된 규범적 습속과 관습을 뜻한다. 나아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중립성의 지점이란 이미 기존 가치질서에서 우위를 누리는 자들이 지정한 배치 방식을 내면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립성이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 즉 탈육화된 정신으로서의 포지션을 의미하며 이는 육체성이라는 실재의 적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정신성은 오로지 남근적 로고스와 팔루스에 의해서만 독점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메갈리안들은 그 중립성의 자리가 남근질서가 강화되는 매듭이 되어왔음을 폭로해버리는 것이다.⁷²⁾

분노는 결여의 자리 대신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균열점들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하여 이를 현실좌표 자체의 변곡점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분노의 힘이다. 여기서 결여와 구멍은 다르다. 결여가 항

72) 페이스북의 김치녀 페이지는 끊임없이 여성혐오적 발언을 양산해내고 있지만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전히 페이지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반해 메갈리안 저장소 페이지는 지속적으로 검열되어 삭제 조치되는 상황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치녀에 대한 혐오는 이미 기존 사회에서 용인될 만한 남성중심적 통념을 구성하고 이를 교란하지 않는 것으로 상식과 중립성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메갈리안 저장소는 기존 질서의 평온함이 유지되던 방식 자체를 문제시하기에 삭제 조치되고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페이스북 코리아가 설정한 커뮤니티 표준 규정이라는 중립성의 기준에서는 여성혐오는 상식적이며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된다.

유(jouissance)⁷³⁾라는 충만성과 과잉성에 대한 포기과 상실의 선언이자 결핍의 질서로서의 남근 질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면, 구멍은 향유가 육박해오는 방식이자 무의미와 비의미 등이 흐드러지는 비예측성의 장, 그것으로의 내던져짐을 뜻한다. 즉 분노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내는 힘으로 기존의 가치체계에 의해 세련되게 정제될 수 없는 것들을 생산해낸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 흥물스러울 수도 괴물적이기까지 한 양태로 기존의 가치들의 이름들을 부수어내며 자신의 가능성은 물론 불가능성의 조건마저도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혐오는 없다. 나아가 여혐혐⁷⁴⁾이라는 여성혐오에 대한 혐오도 없다. 단지 남근질서에 대한 분노(indignation),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만이 있을 뿐이다. 혐오는 하위 계급자들을 향한 파토스로 기존 질서의 부조리를 재생산하는 방식이자 기존의 자리와 위치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라면, 분노는 상위 계급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뒤 흔들어놓는 파토스로서 어떠한 것도 안전하고 안온하게 보전하려하지 않는 급진성을 띤다. 즉 여성혐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일상의 배치방식 자체를 탈구하는 것은 기존질서의 보존에 기여하는 혐오라는 파토스의 연장으로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메갈리안들이 분출해내는 점도-유연성의 언어는 기존의 남근 언어의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한 봉합면이 아닌 그 이면을 들추어내어 상징계에서 불가능한 것이라 규정된 것들을 선택해 스스로도 거꾸러지고 마는 행위화(passage à l'acte)⁷⁵⁾를 실

73) 향유 또는 주이상스는 상징계에서 통용되는 현실원리와 쾌락원리의 유효성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쾌락과 고통, 삶과 죽음,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 경계가 뒤엎겨 버리는 파국적 국면이자 창조적 국면이라 할 수 있다.

74) 일본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저서에서 본격적으로 여성혐오에 대한 혐오-여혐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성혐오의 혐오는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라고 정의내린다.

75) 행위화는 라캉의 용어로서 “해석을 무력화시키는 순수행위다. … 행위화에서 주체의 행위는 상징계와 절연하며 실재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즉 행

행하기 때문이다. 여태껏 스스로만은 거꾸러지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 ‘오빠들을 위한 상냥한 페미니즘’을 구사해왔고 남근적 언어들을 주워섬기며 상식을 거스리지 않는 단어와 감정을 갖고자 애썼으며 이를 통해 오빠라는 승인 심급의 날인을 얻고자 했다면 이제 메갈리안들은 이러한 것과는 동떨어져있는 것이다. 메갈리안들은 여성에게 금기시되는 욕설을 창안하여 발화함으로써 기존의 여성이라는 기표가 정박해온 기의의 장에서 비껴나가 버린다. 왜냐하면 기존의 여성 기표는 평화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폭력성이 거의 없는 모성적이며 현명한 이로 의미화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의의 장에 정주하지 않고 욕설을 제창하고 김치녀여서 뭐 어때?라는 반문을 통해 “나는 김치녀가 아니다.”라는 안도감과 결백의 자리나 “나는 김치녀이다.”라는 죄책감과 자기혐오의 자리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되어버림으로써 식별 불가능해져버린다.

다시 말해 메갈리안들은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는 이들이며 이름과 자리의 판을 흐뜨려놓는 진동과 파동을 생산코자 온몸을 굴러대는 이다. 그리하여 자신들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제자리에 안착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성혐오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이들은 물론 메갈리안들을 여혐혐의 생산자로 비난하며 기계적 중립과 평화의 방식을 지키길 요구하는 이들 역시 그토록 만연한 여성혐오현상 앞에서는 함구하며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해온 것을 날카로이 지적해버리는 메갈리안이다. 즉 어느 누구도 메갈리안이 굴러대는 진동 앞에서 안온하게 머물 수 없으며 귀를 막거나 눈을 가리며 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메갈리안들은 남근적 욕망의 무대에서 과감히 퇴장해버리며 상징계의 무대라는 남근질서를 유지시키려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남근적 욕망의 대상으로도 남근적 욕망의 주체로

위화는 의미효과로 환원될 수 없는 행위, 실재의 차원에 있는 행위이다.” 맹정현, 『리비돌로지』, 109~110쪽.

도 남아 있으려하지 않기에, 그 기저에 놓인 현실-환상⁷⁶⁾을 교란하고 공격 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나는 김치녀입니다.”⁷⁷⁾라는 선언을 하며 혐오의 응축소인 낙인범주를 스스로가 뒤집어서 남근 질서의 욕망의 대상으로 지정되길 거부하며 나아가 기존 남근적 욕망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조차 거부한다. 이것은 자기혐오와 죄책감의 방식이 아니라 분노의 행위화로서 김치녀 선언이자 김치녀는 없다라는 선언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치녀라는 범주를 스스로에게 뒤집어씌운 후 이를 다시 한 번 뒤집어 그것을 누빈 봉제선들을 통렬히 잡아뜯어버리는 행위화이기 때문이다. 여태껏 자신이 김치녀가 아님을 강박적으로 밝히는 행위를 통해 남근적 욕망의 대상이 갖는 자릴 보존코자 하거나 이성적인 언어들에 내면화하여 남근적 발화 방식을 모사함으로써 주체의 자리를 얻고자 했다면, 이제 메갈리안들은 이 둘의 자리, 그 어디에도 자신을 위치시키려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메갈리안들에 당혹감을 감추지

76) 라캉에게 현실과 환상은 대척점이 아니라 현실이 바로 실재로부터의 도피적인 환상 직조물이다.

77) “여대생이 내걸었다는 ‘나는 김치녀입니다’ 대자보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도는 이 대자보는 자신을 ‘13학번 김치녀’라고 소개한 A씨가 대학 건물 유리문에 붙인 것입니다. A씨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김치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치녀입니다. 제 돈으로 비싼 화장품과 명품 옷을 사고, 좋아하는 스타벅스에 자주 갑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으나 김치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김치녀는 일부 여성을 비판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치녀를 구분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여성혐오 분위기가 지속되는데도 사회는 방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역사든 경제든 모든 사회문제는 결국 남자들의. 남자에 의한, 남자를 위한 시각에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A씨는 끝으로 여성을 외모로 판단하는 편견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여성은 아름답다”는 이 폭력적인 명제의 대우 명제는 ‘아름답지 않으면 여성이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김상기(2015), “인터넷 달구는 ‘나는 김치녀입니다’ 여대생 대자보”. 국민일보, 2015년 10월 22일 기사.

못하는 것이며 나아가 메갈리안들이 대타자의 공간 속 대상이나 주체의 자리, 그 어디에라도 속함으로써 기존 문법질서에 의해 제대로 읽혀지길 강요하는 것이다.

메갈리안들은 어떠한 승인 심급도 설정하지 않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 어줄 진정한 타자를 향한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타자의 자릴 빼앗아버림으로써 자신의 발판도 허물어버리는 이다. 그러하기에 메 갈리안의 행위들이 너무 과격해보이며 의미 없어 보이고 어떠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는 무모함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페미니즘 이 “진정한 타자에 대한 호출”⁷⁸⁾ 행위로 승인의 심급을 재설정하려는 것 이었다면, 메갈리안은 어떠한 타자의 자리도 마련해두지 않는 행위화의 양태로 기존의 페미니즘의 액팅 아웃(acting out)의 방식과도 변별된다. 왜 냐하면 라캉은 진정한 타자에 대한 재설정을 액팅 아웃으로 본다면 이러 한 타자에 대한 설정 자체를 염두해 두지 않는 것을 행위화라고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전자를 기존 페미니즘이 추구해온 양 태라면 후자를 메갈리안의 양태로 구분하게 된다.

“모든 여성은 아름답다.”는 고양의 방식으로서의 명제가 “아름답지 않 은 이는 여성이 아니다.”라는 폄하의 명제와 한 쌍을 이룸을 간파해내며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에 여성이라는 기표를 포박하려는 남근적 가치들에 저항하며 이 두 명제의 그 어디에도 귀속되고자 하지 않는다. 이처럼 아버 지의 법질서라는 상징적 장에 개입하여 그것이 실패하는 지점들을 효과 적으로 용기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메갈리안의 행위화는 해석의 깃발마저 도 제대로 꽂힐 수 없도록 만드는 일령이는 표면이다. 왜냐하면 메갈리안 들은 또 다른 대타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남근적 무대를 연장하거 나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완전함의 지점이라는 중립성의 자리마 저 거대한 환상-베일임을 폭로하며 이를 찢어버리기에 그 어떤 것도 남겨

78) 맹정현, 『리비돌로지』, 98쪽.

두지 않는 무모한 파국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남근적 무대의 붕괴 앞에서 불편하고 불안하며 기존 가치화 체계를 찌꺼기로 만드는 이것만은 아니길 바라게 되는 것이다.⁷⁹⁾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남근적 무대는 혐오의 범주와 고양의 범주를 동시에 작동시키기에 우리에게 안도감과 숨을 곳을 그나마 마련해두는 것이지만 이 무대의 붕괴자인 메갈리안이 펼치는 미지의 대지는 참으로 척박하여 발 디딜 지면조차 분간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3) 사자에서 어린아이로-점도-유연성의 언어에서 살갗의 언어로

메갈리안들이 구사하는 욕설과 조롱을 남성의 언어라고 한다면 가장 우려하고도 점잖은 학문적 언어들은 남성의 언어가 아닌가. 기존 질서의 판 위에서는 남근적 언어가 혐오와 고양의 방식을 모두 독점해버렸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근적 언어의 모사자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협소한 현실에 우리는 놓여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 권장되는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여성적 말하기 방식 역시 이미 남근질서에서 배분되고 용인

79) 최현지 시민기자는 메르스 갤러리 유저들이 남성적 언어인 욕설과 폄하라는 폭력을 그대로 모사함으로써 진짜 여성의 정체성이 부차적인 것이 되고 흐려졌다는 우려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부차적이지 않은 여성의 진짜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는 여성 정체성에 대한 의미화 방식마저 이미 기존 남근질서에서 도출된 효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실 판 위에서 남성적 언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이다. 메갈리안의 행위화가 불편함과 낯섦, 이질성을 부상시킨다면 바로 이것이 기존의 의미화 방식을 분쇄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 불편함의 지점이 실재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최근 ‘메갈’이 보여주는 반발적 활동이 우려스러운 것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데서 그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메갈’이 ‘미러링’을 시도하기 시작한 시점 이래로, 줄곧 ‘남성’의 언어습관과 사고를 통째로 빌려왔으므로 그것을 반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유방식, 즉 ‘비하’ ‘무시’ 혹은 ‘차별’이라는 기제가 사용자들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 ‘메갈’이 계속해서 ‘미러링’만을 구사하는 이상, 그들은 본질적으로 대외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최현지(2015), “남자는 패야한다는 페미니즘, 나는 불편하다.”, 오마이 뉴스, 2015년 10월 15일 기사.

된 말하기 방식에 속하는 것이며 이성적이고 중립적, 객관적 언어조차 남성적 언어의 표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갈리안의 점도-유연성의 언어야말로 권장된 여성적 말하기도 표준화된 남성적 말하기 방식 어디에도 협착되지 않는 것이다. 메갈리안의 언어가 그토록 흉물스럽고 불편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남근적 의미화와 가치화 체계로부터 벗어난 것이자 이로부터 절연선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상징계와의 친연성을 거두어들이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터도 없다.

즉 전복적 반사경으로서의 메갈리안은 기존의 의미의 터들을 폭파시키고 폐허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위한 파괴적 행위를 가시화한다. 왜냐하면 메갈리안들이 구사하는 행위화는 남근적 욕망의 무대를 종료시켜 욕망의 좌표 변환을 촉구하도록 하는 망치질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망치질의 시간은 실재의 맨살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이 맨살은 우리와의 접촉을 통해 무엇을 피워낼 것인가. 즉 욕망의 변곡점의 도입 이후 어떠한 주체화 양태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 전복적 반사경이 니체적 사자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의 유희로 과연 도약할 수 있는가가 이 챕터의 논지가 될 것이다.

메갈리안의 점도-유연성의 언어가 농도를 맞추어내어 스며들어가 으깨고 뒤엎고 한시적 응집과 해체를 반복하는 과정이라면 이러한 공백의 도래는 비의미와 무의미 또한 도래시킨다. 여기서 비의미와 무의미는 의미의 적출과 도려냄만이 아닌 비예측적 의미화 양태의 새로운 흐드러짐과 생성을 뜻하는데 이러한 창조적 긍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점도-유연성의 언어는 망치의 언어로서 번역어들을 창출하고 나아가 기존의 거대한 개념들을 말소(rature) 하에 두어 비판적 거리두기를 발생시키고 비틀어버리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비판적 부정성에서 창조적 긍정성으로의 이행을 위해 살갗의 언어로 이행해야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여기서 살갗의 언어(la langue-peau)란 이중 접촉면-안과 밖, 표피와 진피, 자기와 타자, 나와 세상, 동질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 등으로 구성되어있

는 매만짐과 두드림의 언어이다.⁸⁰⁾ 점도-유연성의 언어가 망치질의 언어로 상징계로부터 절연선을 그려내는 것이었다면 필자가 제창한 살갓의 언어는 전율이라는 파동과 진동에 의해 스스로의 한계가 매번 주파되는 것으로 매만짐과 두드림의 접촉면을 생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살갓의 언어는 jouissance(쥬이상스)가 jouis-sens(쥬이-상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⁸¹⁾, 향유가 의미의 유희와 연동되는 지점이 됨으로써 더 이상 향유와 기표가 대척점으로 머물지 않고 이 두 가지의 오묘한 이접을 통해 새로운 의미화 양태는 물론, 욕망⁸²⁾과 충동이 접속된 새로운 주체화 양태가 탄생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열린 의미화 과정들의 궤적들로서의 살갓의 언어는 추상적 “표상질서에만 갇힌 것이 아닌 하나의 몸짓이자 음향, 색채, 빛감, 온도”, 웅얼거림, 고함일 수 있다.⁸³⁾ 메갈리안의 언어가 의미의 영점에서 다시 도약한다면, 니체적 사자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니체에게 어린아이 단계는 창조적 긍정성의 지점으로서 사자의 거친 포효의

80)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에서 언어를 이중 접촉면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였으며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에서 피부를 복처럼 사용하여 위대한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전율이 될 것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사상의 단초들에 영감을 받아 살갓의 언어라는 비남근적, 탈기표적 언어에 대해 모색해보게 되었다.

81) “그렇다면 쥬이상스(jouissance)란 jouis sens일 수 있는가. Jouissance와 jouis sens는 언어 유희적으로 발음상으로 동일하게 쥬이상스가 된다. Jouissance가 jouis sens일 수 있는가는 곧 쥬이상스가 의미의 향유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서 살갓의 언어가 어떻게 터져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윤지영(2014), 『살갓의 언어는 가능한가-가타리의 비기표적 기호론과 알튀세르의 마주침의 유물론을 통한 동태적 언어양태의 모색-』, 『철학논집』 36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327쪽.

82) 욕망이 향유의 상실과 포기를 통한 기표화의 장이라면 충동은 기표와 실재 사이에 걸쳐져있는 긴장적 역학성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라캉은 『세미나 7: 정신분석학의 윤리』에서 욕망과 충동이 접속된 주체를 윤리적 주체라고 정의내린다.

83) 윤지영, 『살갓의 언어는 가능한가-가타리의 비기표적 기호론과 알튀세르의 마주침의 유물론을 통한 동태적 언어양태의 모색-』, 336쪽.

“아니오”라는 거부와 저항의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창조의 놀이를 통해 새로운 판을 직조할 것이다. 이러한 어린아이 단계는 의미의 영점에서의 도약 행위인데, 이때의 0은 존재와 비존재 간의 어디에도 온전히 소속될 수 없는 것이자 기존의 남근적 의미화와 가치화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영점은 “완전한 외피도 완전한 내부성도 아닌 사이-지대로서의 살갓의 언어”⁸⁴⁾에 의해 창조적 유희로 변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살갓의 언어는 남근적 의미질서에서의 이분법적 분할 논리의 임계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실재의 맨살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화 양태와 접속, 접촉하여 새로운 존재의 변용과 변신의 양태들을 창조할 것인가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갓의 언어의 구사자들은 인간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 정상인과 비정상인, 내국인과 외국인, 어린이와 어른 등의 이중 분할선을 파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변신의 윤리학이기도 하다. 즉 점도-유연성의 언어가 분노의 파토스로 추동되는 인간 행위자⁸⁵⁾로 한정된 것이라면, 이제 살갓의 언어는 인간학적 언어질서 안에서 공통적인 것에 대한 추출과 강화 장치로 그치지 않고 강렬도의 지도라는 차이의 생성들을 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갈리안들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점도-유연성의 언어가 기표와 기의의 매듭 풀어헤치기와 새로운 기표의 창출과 기의의 확장이라는 추상적 표상질서의 교란행위로 한정된다면⁸⁶⁾, 이제 메갈리안들은 이러한 기표화의

84) 윤지영, 「살갓의 언어는 가능한가-가타리의 비기표적 기호론과 알튀세르의 마주침의 유물론을 통한 동태적 언어양태의 모색」, 323쪽 각주 12.

85) 메갈리안들은 다양한 모금 활동을 통해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연대의 양태를 구성해낸다. 다시 말해, 메갈리안들이 구성해내는 연대의 방식이 인간의 질서 속 소수자들에 한정된다면 살갓의 언어는 동물권과 인권의 경계는 물론 인간의 동물성에 대한 인정과 인간중심주의의 탈구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86) 기지 넘치는 번역어-단순한 번역어가 아닌 혐오의 언어들을 고치고 비틀어 새로

장은 물론 몸짓과 고함, 색감, 음향, 침묵⁸⁷⁾ 등의 비기표적 차원을 동원하여 실재의 맨살과 주체의 맨살, 대타자의 맨살이 접촉되는 이접점에서 새로운 행위의 정치학과 윤리학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점도-유연성의 언어가 맨살이라는 공백과 파국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이러한 맨살들의 접촉점이라는 파국의 계기 속에서 무엇이 피어나고 돌아나는가를 살갓의 언어는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갈리안들은 주인의 윤리⁸⁸⁾가 아닌 새로운 윤리, 즉 트랜스 에티카⁸⁹⁾라는 변신의 윤리학에서 다양한 변이의 양태들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남근적 의미효과로 환원될 수 없는 행위화들이 탈봉합의 계기임과 동시에 생성의 선들을 방출시키는 창조의 지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메갈리안들이 혐오의 낙인범주에 대한 번역어들을 통해 기존 아버지의 법질서에 뒤틀림을 가하고 탈주를 실행해 왔다면 이제 새로

운 기표를 만들어내어 쓰는 방식-들의 생산과 다양한 모금 운동과 청원 운동, 구매 거부운동 등을 통해 메갈리안들은 저항의 행위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성이 기표적 언어질서에 대한 기표적 교란과 개입 행위라고 한다면, 살갓의 언어는 때 아닌 몸짓과 소리침, 그림과 음악, 온도, 음성임, 침묵 등의 탈기표적 방식들을 언어-신체라는 장 안에서 새로이 구성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87) Femen이라는 유럽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공적 영역라고 규정되는 거리나 국회 의사당, 성당, 대학 등에 상의를 탈의한 채 나타나 정치적 메시지를 강렬하게 던지는 몸짓과 고함을 구사한다. 필자는 이를 살갓의 언어의 예로 해석한다. 또한 터키 남성들이 성폭행 당한 여성의 죽음이 짧은 치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위계적 권력성 때문임을 폭로하기 위해 거리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한 것도 살갓의 언어의 예이다.
- 88) 주인의 윤리는 우리를 길들이는 것으로 동일성의 원칙과 쾌락 원칙 내에 머물기를 요구하는 강령이라 할 수 있다. “주인의 윤리란 두 가지로서 첫 번째가 거울 단계의 상상적 반영관계에 의존한 윤리이고 두 번째는 집단의 공동의 이상으로서의 자아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상징적 윤리이다.” 맹정현, 『리비도로지』, 304쪽.
- 89) 트랜스 에티카라는 개념은 유지선의 2013년 6월 프랑스 철학회 발표논문제목이기도 하며 변신의 윤리학이라는 새로운 윤리학적 전회를 위한 개념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 트랜스 에티카라는 변신의 윤리학의 주체화 양태를 변이체로 보며 이러한 변이체의 의미화와 가치화 방식이 살갓의 언어를 통해 가능하다고 분석하게 된다.

운 언어 양태들-기존의 기표화 질서에 머물지 않는 언어-신체로서의 탈기표적 언어들을 새로이 세공해나가고 창조하는 단계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즉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은 니체적 사자의 포효에서 어린아이의 유희를 통해 새로운 가치들,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은 가치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체(subject)라는 아래에 내깔리고 매몰된 신민성의 개념에서 변이체(metamorphoject)⁹⁰⁾-변이와 생성을 향해 기투하는 역동체로 도약해야 한다. 이러한 변이체는 트랜스 에티카(trans ethica)라는 변신의 윤리적 주체화 양태로서 살갗의 언어를 통해 다양한 의미화와 가치화의 양태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행위의 정치학을 통해 새로운 연대의 장을 실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는 말

우리는 과연 제대로 분노한 적이 있는가. 분노를 애써 굴욕감이나 죄책감이라는 파토스로 필터링함으로써 현실의 견고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안정성과 견고성 역시 높혀 보고자 안간힘 쓰며 혐오의 언어들 앞에서 침묵하고 웃어넘기진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 감각을 획득하는 방식이자 현실의 좌표축 위에 안전하게 기입되어 표류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메갈리안이라는 반사경은 다양한 광학적 반사 원리를 통해 변형과 일그러짐의 스펙트럼을 펼쳐내며 동일성의 원리로 환원될 수 없는 탈주의 지점들을 쏟아낸다. 그러하기에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은 우리의 안온한 일상의 매듭들을 풀어헤쳐 아버지의 법질서의 비전체성과

90) 변이체라는 메타모르포젝트 개념은 2014년 8월 논문 「유령-스펙트럼 프로이트; 리비도-코나투스: 가능한가」에서 제창한 개념이다. 이것은 새로운 주체화 양태에 대한 개념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기존 주체 개념의 종속성을 넘어서기 위한 것으로 인간 질서에 갇히지 않는 탈인간화 작업이자 변이를 향한 창조적 생성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비토대성이라는 맨살을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것이다. 즉 메갈리안을 여자 일베나 일베의 복사판으로 축소하기에는 이 반사경이 용기시키는 실재의 맨살은 현실의 구멍과 균열들을 드러내며 그 구멍 속으로 기존 질서의 부조리한 현실의 교직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메갈리안들은 혐오의 언어가 가진 각화된 언어 대신 점도-유연성의 언어라는 농밀도의 언어를 풀어내며 여성 혐오 논리의 빈곤성을 되받아친다. 혐오의 언어가 명확한 분할의 언어로서 기존 질서를 강화, 유지, 보존하기 위한 봉합의 논리라면 점도-유연성의 언어는 분노라는 정치적 파토스를 통해 아버지의 법질서의 비일관성과 비전체성을 드러내는 탈봉합의 언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혐오는 없다. 단지 남근질서에 대한 분노(indignation),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만이 있을 뿐이다. 혐오는 이름과 자리의 질서를 재생산해내는 것으로 하위 계급자들을 향한 신화적 폭력-법 보존적, 법 제정적 폭력의 양식이라면 분노는 상위 계급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뒤흔들어놓는 신적 폭력성-혁명적, 법 파괴적 폭력의 양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혐오논리의 질서판을 탈구시키는 메갈리안의 행위화는 분노라는 급진적 정치화의 힘이다.

즉 메갈리안이라는 전복적 반사경은 남근질서의 좌표축 자체에 변곡점을 도입해버리며 상징계와의 절연선을 직조해낸다. 왜냐하면 기존 가치의 폐허더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창조선이 비로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메갈리안의 점도-유연성의 언어가 실재의 맨살이 이미 남근 질서와 주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파국과 공백의 계기라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맨살의 용기와 접촉이 과연 어떠한 새로운 살의 돌아남으로 이행할 것인가를 질문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비판적 부정성에서 창조적 긍정성으로의 이행을 위해 살갓의 언어라는 이중 접촉과 마주침을 통한 존재역량의 변이능력을 생산해내는 새로운 언어양태에 주목해야한다. 혐오의 언어들에 대한 번역어의 생산과 기표 질서에 대한 교란을 도입하는 점도-유연성의 언어를 넘어서, 언어-신체라는 몸짓과 음향, 침묵,

고함, 색채, 선율 등의 탈기표화된 의미화와 가치화의 새로운 양태들을 창조해내는 살갓의 언어를 통해 메갈리안은 니체적 사자의 포효에서 어린아이의 유희, 그 찬란한 놀이의 역동성 속으로 돌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숙(2012), 『이윤택의 연극 위기의 미학과 담론성』, 『한국 연극학』 제48호, 한국 연극학회.
- 김정환(2015), “나도 찍혔나? 몰카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뉴시스, 2015년 9월 8일 기사.
- 김상기(2015), “인터넷 달구는 ‘나는 김치녀입니다’ 여대생 대자보”. 국민일보, 2015년 10월 22일 기사.
- 맹정현(2009), 『리비도로지』, 문학과 지성사.
- 오하영(2015), “메갈리아가 자꾸만 삭제되는 이유”, CBS노컷뉴스, 2015년 7월16일 기사.
- 양대근(2015), “‘김치녀, 삼일한...’여성혐오발언 형사처벌추진 논란”, 헤럴드 경제, 2015년 10월 9일 기사.
- 윤성준(2006), 『거울유희로 본 타이포그래피의 유희적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 디자인과 석사 논문.
- 윤지선(2013), 『트랜스 에티카』, 프랑스 철학회 발표문.
- _____(2015),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 용어 분석론 : 지질학적 공간의 탐사 작업으로서의 철학』, 해석학회 발표문.
- 윤지영(2013), 『주체의 해석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이해는 진단인가, 낙인적 범주화인가』, 『시대와 철학』 제24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_____(2013), 『트랜스 리비도 경제학』, 『철학 연구』 제126집, 대한철학회.
- _____(2014),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사유 역학 논고-솔리더리티(solidarity)에서 플루이더리티(fluidarity)로-』, 『서강인문논총』 제40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2014), 『살갗의 언어는 가능한가-가타리의 비기표적 기호론과 알튀세르의 마주침의 유물론을 통한 동태적 언어양태의 모색-』, 『철학논집』 36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_____(2014), 『유령-스펙트럼 프로이트-리비도-코나투스는 가능한가』, 『철학논집』 제38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_____(2015), 『증오의 프리즘으로서의 일간 베스트 현상 읽기-파토스의 정치학과 윤

- 리학은 가능한가, 『철학논집』 제41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정희진(2015), “여혐, 남혐, 이혐”, 씨네 21, 2015년 7월 28일 칼럼.
- 최현석(2015), “홍콩당국 “메르스 확진자와 비행기 동승 韓人 2명, 격리 거부중”, 연합뉴스 2015년 5월 30일 기사.
- 최현지(2015), “남자는 패야한다는 페미니즘, 나는 불편하다.”, 오마이 뉴스, 2015년 10월 15일 기사.
- 최희진, 베이징 오관철 특파원(2015), “메르스 의심 환자 중국 출장… 국가 방역망 뚫렸다.”, 경향신문 2015년 5월 29일자 기사.
- Benjamin, W(2008), 『폭력비판을 위하여』,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 Bernand, J-P(2004), 『베르낭의 그리스 신화』, 문신원 옮김, 도서출판 성우.
- Brantenberg, G(1996), 『이갈리아의 딸들』, 노옥재, 엄연수, 윤자영, 이현정 옮김, 황금가지.
- Butler, J., Laclau, E., Žižek, S(2009),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좌파에 대한 현재적 대화들』, 박대진, 박미선 옮김, 도서출판b.
- Creed, B(2006),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영화,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손희정 옮김, 여이연.
- De Maupassant, G(1970), *Le maupassant du Horla*, édition présentée et annotée par Pierre Cogy, Paris: Lettres modernes minard.
- Deleuze, G(2004),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 _____(1980), *Mille Plateaux*,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 Filloux, J(2002), “La peur du féminin : de La tête de Méduse (1922) à La féminité(1932)”, *Topique* 1/2002 (no 78).
- Foucault, M(1986), *La pensée du dehors*, Montpellier; Fata morgana.
- Lacan, J(2004), *Le séminaire 10*, Texte établi par Jacques-Alain miller, Paris; Edition du Seuil.
- _____(2005), *Le séminaire livre XXIII; le sinthome*, Paris; Editions du Seuil.
- Nietzsches, F(1996),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순옥 옮김, 홍신문화사.

〈abstract〉

Megalian Controversy as a Revolutionary Mirror: Is It Possible Man-hating?

Yun Ji Yeong (Han Yang University)

In this paper, I try to focalize on Megalian phenomenon as a revolutionary mirror that reveals limits of Law of the Father. Megalian phenomenon is not reduced to a simple copy of il-be phenomenon that is spreading hatred towards minorities. The megalians attempt to produce a language of visco-plasticity which consists of criticism of the language of hate. The language of hate that consists in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s what holds the mythical violence which aims to dissimulate the contradiction of the established order. In contrary, the language of visco plasticity which aims to operate the deconstruction of the reality, is what carries the divine violence which aims to deconstruct the father's law. In this perspective, megalian phenomenon is not man-hating. It is only indignation towards the phallic order that promulgates misogyny and gender discrimination. It should distinguish hatred of indignation in the sense that the former is conservative, while the second is subversive. The megalians have the strength to move with indignation in order to elaborate radical thought and put in execution a great change.

Keywords: Kimchi woman, Megalian, Language of flesh, Revolutionary mirror,
Language of visco-plasticity

논문투고일 : 2015년 11월 3일

논문심사일 : 2015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1월 19일